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59호 【루계 제26133호】 주체107(2018)년 9월 16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8돐과 조국해방 73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 위원장과 총서기, 공산당《로씨야의 공산주의자들》중앙위원회 위원장, 마쟈르로동당 위원장, 체스꼬공산당－21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에스빠냐민주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또한 이란이슬람교련합당 부총비서, 에스빠냐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비서, 이딸리아종합투자그룹 리사장,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를 비롯하여 중국, 로씨야, 끼쁘로스, 이란, 일본, 도이췰란드, 로므니아, 벌가리아, 벨라루씨, 스위스, 슬로베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에스빠냐, 세네갈, 에티오피아, 꼴롬비아, 뻬루, 에꽈도르의 정계, 사회계,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친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8월의 뜻깊은 날들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열렬한 축하를 드리였다.

그들은 조선의 해방과 사회주의건설,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인류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빛내이시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담보하신 세계정치의 원로이시라고 그들은 칭송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벨라루씨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벨라루씨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벨라루씨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아.엔.쏘꼴이 7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림시대리대사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앞길을 밝혀주는 불멸의 대강

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식 진행, 인터네트홈페지에 게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자》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과지오쏘프트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1일에 진행되였다.

출판사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일본의 군사적강점으로부터 조선을 해방하시고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조선이 70년이라는 력사적기간에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을 털어버리고 오늘과 같이 변모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데 있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는 만민의 끝없는 흠모를 받으시는 위인들이시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현시대의 가장 출중한 정치지도자로서 세계의 각광을 받고계신다.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흐름을 주도해나가시는 그이의 뛰어난 정치실력에 전인류가 찬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은 보다 훌륭한 미래에로 비약해나갈것이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를 인디아의 인디안 엔드 월드 이벤트신문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5일에 진행되였다.

신문사주필 위권 굽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고전적로작을 출판하게 된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각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고 영원한 주석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억압받고 천대받던 조선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로작은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인디아인민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게 될것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공화국정권은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며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의 기치이다》를 민주꽁고 쎄디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8월 19일에 진행되였다.

민주꽁고의 여러 정당, 단체, 기관의 인사들과 군중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앙드레 로헤엘레 짱은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에 대한 발행식을 진행하는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되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를 높이 모신 조선은 오늘 세계가 공인하는 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책공업종합대학은 나라의 위력한 과학기술인재양성기지이다》를 김책공업종합대학창립 70돐에 즈음하여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2일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렸다.

홈페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을 모시였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을 힘있게 떨친 기세로 경제건설대진군을 다그치자

선전선동공세로 증산돌격운동 고무추동

각지 당조직들에서

각지 당조직들에서 집중강연선전대를 조직하고 대중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로 추동하는 선전선동활동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전투장마다에서 눈부신 혁신이 창조되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들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집중시켜 새로운 비약의 봉화를 지펴올리기 위한 북소리를 세차게 울려야 합니다. 》

평안남도당위원회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을 벌림에 대한 당의 호소에 접한 후 강연담당일군들과 직외강연강사들로 집중강연선전대를 조직하였다.

인포청년탄광과 회안청년탄광, 세남탄광과 남양탄광에 나간 집중강연선전대원들은 삼지연군꾸리기전투장과 단천발전소건설장,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 대한 련합집중강연선전활동을 통해 느낀 소감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밑에 조국강산을 진감시키며 련이어 일어난 눈부신 기적들을 강연에 반영하였다. 군중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화선식으로 벌려나가는 이들의 강연은 석탄증산으로 당을 결사옹위해나갈 의지안고 떨쳐나선 탄광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는 불씨가 되고 도화선이 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 군, 련합기업소당조직들에서도 집중강연선전활동을 참신하게 벌려나가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안의 모든 시, 군들과 련합기업소들에 당일군들과 공로자강연강사, 직외강연강사들을 망라한 집중강연선전대가 조직되어 맹활약을 하고있다.

평성시당위원회, 증산군당위원회에서도 능력있는 직외강연강사들과 공로자강연강사들로 집중강연선전대를 조직하였다. 중요전투장들과 협동농장들을 순회하면서 이들이 벌린 집중강연선전활동에 고무된 이곳 근로자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시, 군, 련합기업소의 당조직들에서 강연담당일군들과 직외강연강사, 공로자강연강사들로 집중강연선전대를 조직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로 추동하는 집중강연선전활동을 참신하게 벌려 전투장마다에서 혁신이 창조되게 하고있다.

지난 8월말 황해제철련합기업소 20t산소전로와 산소분리기설치공사장, 용광로직장, 가스발생로직장을 비롯한 10여개의 중요생산단위들에 나간 집중강연선전대원들과 도급기관의 직외강연강사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어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신심드높이 철강재생산을 늘이기 위한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리자는 내용으로 강연선전활동을 벌리였다.

노래 《제힘이 제일이야》, 시초 《황철과 조국》을 배합하여 집중강연선전대원들이 벌리는 강연선전에 고무된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20t산소전로공사와 산소분리기설치공사에서 혁신을 이룩하고 무연탄만생산공정의 이설 및 개건공사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과 정방산종합식료공장을 비롯한 도안의 령도업적단위들에 나간 집중강연선전대원들은 당에서는 령도업적단위들이 용을 쓰며 일떠서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는데서 기관차, 견인기가 될것을 바라고있다고 하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서도 남먼저 승전의 포성을 울려나가자는 내용으로 강연선전활동을 벌리였다.

이에 고무된 령도업적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사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증산돌격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평안북도당위원회와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도 집중강연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려 모든 전투장들이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룡천군 신암협동농장의 포전에서 집중강연선전의 첫 포성을 울린 집중강연선전대원들은 염주군을 비롯한 도안의 협동농장들을 종횡무진하면서 가을걷이준비를 다그쳐 끝낼데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강연선전활동을 드세게 벌리였다.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와 락원기계련합기업소, 구성공작기계공장의 직외강연강사들도 강연선전활동의 무대를 현장으로 옮기고 집중강연선전활동을 힘있게 벌리였다. 이에 고무된 구성공작기계공장의 로동자들은 새형의 CNC공작기계를 개발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 집중강연선전대들을 발동하여 현장에서 벌리고있는 화선식경제선동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 떨쳐나선 대중의 정신력과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남김없이 폭발시키고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년간 착암기생산계획 빛나게 초과완수

김책착암기공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제품을 하나 생산하여도 우리 식의 CNC기술개발자들처럼 세상에 소리치며 자랑할수 있게,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이 내놓을수 있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

김책착암기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년간 착암기생산계획을 빛나게 초과완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장에서 생산한 착암기는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 우리의 자재로 만든 제품으로서 성능이 높다.

우선 공기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천공속도가 빠르다. 때문에 같은 능력의 압축기를 가지고도 굴착속도를 높일수 있다. 또한 예비부속품들이 충분하여 수리정비조건이 좋고 가동률을 종전에 비해 훨씬 높일수 있다. 착암기의 수명도 길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착암기생산의 형단조화, 프레스화를 실현하고 생산을 정상화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공장에서는 뜻깊은 올해 착암기생산의 현대화와 생산장성에서 보다 큰걸음을 내짚을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

일군들은 생산정상화의 기본열쇠를 과학기술에서 찾고 착암기의 부속품과 부분품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보장하며 형단조화비중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온 공장에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그 어느때보다 세차게 타올랐다.

공장의 일군들은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려놓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여 누구나 과학기술의 주인,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준비시키는 한편 발명가, 창의고안자대렬을 늘여 능률적인 지구, 장비, 공구들을 수많이 창안도입하게 하였다.

공장기술집단과 청진광산금속대학의 연구집단은 두뇌전, 실력전을 힘있게 벌려 제품의 질을 더욱 높일수 있는 새 기술을 연구하였다.

결과 공장에서 생산한 착암기는 단천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대고조전투장들에서 그 우월성이 뚜렷이 과시되였으며 착암기생산의 형단조화비중은 훨씬 높아졌다.

일군들은 이에 맞게 성능높은 착암기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능숙하게 해나갔다.

단조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생산의 첫 공정을 맡아나선 책임감을 안고 설비관리, 기대관리를 짜고들어 형단조품생산을 높이였다. 공구장비직장에서는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탐구도입하여 능률적인 지구와 공구, 형타들을 생산하였다. 청년종합가공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기술기능수준제고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부속품과 부분품의 기술적지표를 정확히 책임적으로 보장하였다. 공무동력직장과 열처리작업반에서도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맡겨진 과제를 제때에 수행하였다.

계획수행기간 공장에서는 흐름식착암기조립공정을 확립한것을 비롯하여 착암기생산을 비약적으로 높이기 위한 물질기술적토대축성에서도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년간 착암기생산계획을 초과완수한 기세드높이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을 계속 힘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가을걷이전투에서 련일 혁신

황해남도에서

황해남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강냉이가을걷이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합니다. 》

도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할 불같은 각오를 안고 강냉이가을걷이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의 일군들은 강냉이가을걷이계획을 빈틈없이 세우고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협동농장들에서 무조건 수행하도록 강하게 내밀고있다.

일군들은 들끓는 협동벌에 내려가 가을걷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대책을 세워주기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고있다.

배천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섰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강냉이가을걷이를 일정계획대로 내밀고있다.

군의 농업지도기관 일군들은 모든 농장들에서 가을걷이일정계획을 해당 지방의 자연기후조건과 구체적실정을 고려하여 세우고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현장지도에 힘을 넣고있다. 농업근로자들은 한알의 낟알도 허실할세라 애국의 한마음을 다 바쳐 강냉이가을걷이를 진행하고있다.

해주시에서도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시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강냉이가을걷이계획의 90%계선을 돌파한 기세로 계속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가을걷이실적이 오르는데 맞게 모든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하여 강냉이이삭들을 제때에 실어들이도록 하고있다.

신천군, 재령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강냉이가을걷이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고있다.

일군들은 대오의 앞장에서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농업근로자들은 애써 가꾼 낟알을 한이삭이라도 허실할세라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면서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임무의 중요성을 명심한 운전수들은 뜨락또르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있다.

연안군, 청단군을 비롯한 다른 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긍지를 안고 강냉이가을걷이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박철

강냉이가공공정현대화공사 결속

장자산종합식료공장에서

자강도에서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 장자산종합식료공장 강냉이가공공정현대화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강냉이가공공정현대화공사가 성과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원료투입으로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들의 자동화, 무균화, 무진화가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게 되였으며 과자, 국수, 옥쌀, 물엿을 비롯한 맛좋고 영양가높은 강냉이가공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생활과 직결되여있는 부문과 단위들을 추켜세우고 생산을 늘이는데 큰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생활상혜택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99(2010)년 7월 장자산종합식료공장에 찾아오시여 자강도와 강계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체의 힘으로 훌륭한 식료공장을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특색있는 식료품을 더 많이 공급하고있는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장자산종합식료공장에 있는 강냉이가공공정을 현대화하여 도내인민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더 잘 이바지하게 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였다.

도의 해당 부문 일군들은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려는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면서 공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도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현지에 나가 걸린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즉시에 대책을 세워주는것과 함께 공사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일군들과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현장지휘부와 공장의 일군들은 강냉이가공공정현대화공사를 하루빨리 완공하여 도내인민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뛰였다.

장자산종합식료공장에서는 강냉이가공공정현대화공사를 위한 돌격대를 뭇고 전문개건전투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온 건설장을 들었다놓는 전투적인 경제선동과 일군들의 이신작칙에 고무된 돌격대원들과 공장의 로동자들은 강계정신창조자들답게 하루를 열흘, 백날맞잡이로 치렬한 돌격전을 벌리였다. 이들은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라는 당의 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전문개건전투를 선행시키면서 설비들을 장비하기 위한 사업을 따라세웠다.

기술지도를 맡은 일군들은 돌격대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생산공정들과 사무실들, 복도를 비롯한 내부공사에서 질과 속도를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공장의 로동자들은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내외부미장을 짧은 기간에 끝내고 마감공사에서도 혁신을 일으키였다.

도의 일군들은 이미 있던 설비들을 개조하거나 새로운 설비들을 제작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앞질러가며 풀어주었다.

도안의 기계공업부문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각종 설비들을 제작설치하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렬한 전투를 벌려 공사를 다그쳐 끝내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장자산종합식료공장 강냉이가공공정현대화공사가 성과적으로 결속됨으로써 도내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식료품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할수 있게 되였다.

도에서는 공사가 완공된데 맞게 원료를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특파기자 김순홍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할 일념으로 생산을 다그친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우리 국가가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준 대정치축전

온 나라 천만군민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높이 모시고 공화국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빛나는 조국》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청년전위들의 태불야회《영웅조선의 강용한 기상떨치며 청년들 앞으로!》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성황리에 벌어져 경축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였다.

우리 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도 공화국창건 70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수많은 외국의 벗들이 평양을 방문하여 우리 인민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좌담회와 강연회, 사진전시회를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정치문화행사들이 진행되여 공화국창건기념일이 진보적인류의 공동의 대경사로 빛나게 된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아가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공화국창건 일흔돐은 우리 국가가 제일이라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준 영원히 잊을수 없는 대정치축전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믿고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자기 국가의 창건일을 의의있게 경축하는것은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의 공통된 지향이다.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법적, 제도적담보가 마련되고 당당한 자주적권리를 가지고 국제무대에 진출하게 된 날이 국가창건일이다. 때문에 국가창건기념일은 국가건설의 경험과 교훈을 총화하는 계기로, 나라의 국력을 과시하는 정치축전으로, 국가의 장래발전을 위한 길이 명시되는 의의깊은 날로 되는것이다.

나라와 주권이 있다고 하여도 국정절이 모든 민족에게 다 영예를 안겨주는것은 아니다. 오늘 세계에는 비록 주권은 있어도 민족간, 종족간 분렬, 외부세력의 간섭책동으로 인한 피난민문제 등 여러가지 난문제들로 하여 국경절을 의의있게 맞지 못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다. 현실은 힘이 있고 단결이 있어야 국가적명절도 인민들에게 환희와 영광을 안겨주는 계기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새 민주조선의 하늘가에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가 장중하게 울려퍼지던 때로부터 《조국찬가》의 송가가 메아리치는 오늘에 이르는 70성상의 장구한 로정에서 우리 인민은 공화국과 운명을 같이하며 험로역경을 헤쳐왔다. 우리 인민은 공화국기발을 높이 추켜들고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였으며 전후복구건설에서 천리마의 기적을 창조하여 우리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불패의 강국으로 일떠세웠다.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높이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도 공화국의 장한 아들딸들이 이룩한것이며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떨치고 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제낀것도 이 나라의 공민들이였다. 이 나날 공화국창건기념일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영웅적투쟁사를 빛내이는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공화국창건 일흔돐 경축행사는 만단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대경사이며 우리 인민에게 공화국의 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북돋아준 대정치축전이였다. 이번 경축행사는 그 내용과 규모에 있어서나 형식적측면에 있어서 매우 성대한 축전이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천세만세 길이 빛내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의 신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려는 드팀없는 의지가 행사장들마다에 차고넘쳤다.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 세계를 향하여 질풍같이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기상,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이 땅우에 번영하는 주체의 강국을 일떠세우려는 불굴의 기개가 만천하에 뚜렷이 과시되였다. 첨단기술과 결합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우리의 과학기술력이 도달한 높은 수준을 과시하는 마당으로 되였으며 특색있는 형식으로 일관된 예술공연들은 청춘으로 약동하는 공화국의 모습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우리 인민들에게는 우리 국가가 제일이라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는 사회주의조선의 일심단결의 기상과 무궁무진한 발전잠재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는데 이번 대정치축전이 가지는 력사적의의가 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은 우리 수령, 우리 당이 제일이라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이 힘있게 분출된 영광의 대축전이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운은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며 사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의 손길아래 나라와 민족도 강대해지고 후손만대의 행복도 마련된다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70년력사가 확증한 진리이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된 공화국에 대한 신뢰와 자부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무한한 충정의 마음으로 분출되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는 우리 조선의 힘이시고 우리 국가의 존엄이시며 우리 공화국의 권위이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이끄시기에 우리 당이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으며 우리 공화국이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로 빛을 뿌리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 우리 조국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것이 우리 인민의 절대불변의 신념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충정의 마음은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계기로 힘있게 과시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높이 모시고 성대히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오직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며 당의 령도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갈 우리 인민의 충정의 열도가 남김없이 폭발되였다. 경축행사의 나날 온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끝없는 매혹과 흠모의 정이 흘러넘쳤다. 수도의 밤하늘을 밝히며 도도히 굽이쳐나간 태불야회에서 높이 울려퍼진 일심단결의 환호성은 세상천지가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오직 당과 운명을 함께 하려는 우리 청년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의 과시로 된다. 자기 령도자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고결한 충정심에는 끝이 없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은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제도가 제일이라는 진리를 만천하에 뚜렷이 과시한 대정치축전이다.

공화국이 걸어온 70년력사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건설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온 력사이다. 주체의 혁명사상이 국가건설의 앞길을 밝혀주었기에 우리 인민은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파탄우창을 모르고 곧바른 길을 따라 전진하여올수 있었으며 사회주의제도에서 존엄높은 삶을 마음껏 누려올수 있었다. 위대한 주체사상,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떠나 공화국의 승리와 번영에 대하여 말할수 없고 우리 인민의 찬란한 미래에 대하여서도 생각할수 없다.

공화국창건 일흔돐 경축행사는 우리의 사상이 제일이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이라는 진리가 힘있게 과시된 축전으로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중앙보고대회와 중앙연구토론회들에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만난시련속에서도 승리만을 떨쳐온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력사가 긍지높이 총화되고 가장 인민적인 제도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주인이 되여 자주적인 삶을 누리는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분출되였다. 특히 세계 여러 나라의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의 참가하에 진행된《주체사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70년》에 관한 국제토론회에서는 주체사상이 우리 인민뿐아니라 진보적인류의 앞길을 밝히는 등대이라는 절규가 힘있게 과시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음악무용종합공연과 중앙산업미술전시회, 중앙사진전람회, 국가도서전람회들에 관통된것도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이다.

이번에 평양을 방문한 외국의 벗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이 빛나는 현실로 꽃펴난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에서 사는 우리 인민의 행복한 모습에 대하여 감탄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려명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한 현대적인 살림집들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는 정법한 근로자들, 수도의 거리를 누비며 달리는 공우유차들, 한점의 구김살도 없이 씩씩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수도시민들의 모습에서 주체의 사회주의가 어떤것인가를 깊이 절감하게 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산 현실속에 구현되여있는 주체사상,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공화국창건 일흔돐 경축행사기간에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은 우리 국가의 무진막강한 국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준 대정치축전이다.

9월의 대축전장을 향한 진군길에서 우리 국가의 무궁무진한 발전잠재력이 힘있게 과시되였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으려는 적대세력들의 제재봉쇄책동은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였으나 우리 인민은 불굴의 투쟁으로 공화국의 번영을 위한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 로정에서 자기 힘이 제일이라는 진리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 마음만 먹으면 그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낼수 있는 우리 국가의 저력이 만천하에 뚜렷이 확증되였다.

이번 공화국창건 일흔돐 경축행사는 70성상의 장구한 로정에서 다지고 또 다져온 불패의 국력이 남김없이 과시되는 성대한 축전으로 빛을 뿌리였다. 열병식장에서 대지를 진감시키며 나아간 주체무기들은 우리 인민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준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이다. 뜻깊은 올해 자력갱생의 창조대전의 불길속에서 전국적으로 1 240여개 단위들에서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성과가 이룩되고 강원도양묘장이 전국의 본보기로 일떠섰으며 김철과 황철의 로동계급이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을 위한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되여 나라의 려객운수부문을 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구축되고 남포태경수산사업소에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현대적인 만능어선인 쌍선제고기배를 무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최상의 봉사조건을 그린히 갖춘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이 인민봉사기지로 멋들어지게 일떠서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어머니조국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9월의 대축전장에 멋멋이 들어서려는 우리 인민의 불같은 열정이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게 한 근본원천으로 되였다.

참으로 공화국창건 일흔돐은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서 우리 국가가 제일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가 제일이라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북돋아준 대정치축전으로 력사에 아로새겨지게 되였다.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한 기세로 경제건설대진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이 땅우에 기어이 번영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것이다.

박 연

사회주의강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억센 기상 만방에 떨쳐간다.
본사기자 리 충 성 찍음

이민위천으로 빛나는 력사의 갈피에서

필생의 좌우명

주체81(1992)년 12월 어느날이였다.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이 참다운 인민의 충복이 되려면 혁명적군중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내가 회고록에 《이민위천》이라고 썼는데 그것은 인민을 하늘과 같이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민위천》은 나의 지론이고 철학입니다. 나는 혁명의 길에 나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평생 인민대중을 하늘과 같이 여기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였으며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하여왔습니다. 혁명하는 사람이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면 천하를 얻고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을 멀리하고 그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것은 오랜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진리성이 뚜렷이 실증되였습니다.

혁명령도의 전기간 이민위천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어버이수령님,

인민에 대한 무한한 믿음과 사랑이 뜨겁게 흘러넘치는 어버이수령님의 간곡한 교시를 새겨안는 일군들의 가슴속에서는 격정의 파도가 세차게 일렁이고있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주체92(2003)년 10월 28일이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담화를 나누시면서 이런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이민위천은 수령님의 좌우명이자 나의 좌우명이며 나의 정치철학입니다. 우리 당이 내놓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에도, 당의 인민사랑의 정치, 인덕정치에도 이민위천의 사상이 빛나게 구현되여있습니다. 인민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끝까지 보살펴주는 정치, 인민이 바란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고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정치가 바로 우리 당의 인덕정치입니다. 나는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으며 언제나 군인들과 인민들속에 있으면서 군민대중의 생활을 사랑과 온정으로 세심히 보살펴주고있습니다. 인민들이 누리는 행복과 기쁨속에 바로 나의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는 일군들의 가슴을 울려주었다.

고결한 헌신의 세계

어느해 봄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이 내가 땅을 새워가며 일하는데 대하여 걱정하는데 있다고, 나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경제문제와 인민생활문제를 풀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뿐이라고 하시며 인민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실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으시였다.

우리는 모두가 인민의 아들딸이다. 우리는 인민의 아들딸로서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 태를 묻고사는 인민의 아들딸답게 오늘의 이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고 하루빨리 나라의 경제와 인민생활을 추켜세워 기어이 내 나라, 내 조국을 인민이 잘살고 모든것이 흥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워야 한다. 우리 인민들이 지금은 고생을 하고있지만 앞으로 오늘을 옛말처럼 추억하며 잘살 날이 반드시 올것이다. …

우리 인민의 모습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으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한없이 고결한 헌신에 받들려 이 땅에는 인민사랑의 력사가 끝없이 펼쳐지고있다.

본사기자 김 일 권

| 수 기 |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 길이 전해가리

무릇 세월이 흐르면 지나온 나날들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일들이 삭막해진다고 한다. 하지만 나의 뇌리에는 이 나라 인민모두의 행복의 요람인 공화국의 자랑찬 력사에 수놓아진 감동깊은 인민사랑의 이야기들이 자꾸만 생생히 떠올라 눈금이 젖어들고 마음은 세찬 흥분으로 끝없이 설레인다.

그럴수록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우리 창광원과 더불어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던 잊지 못할 나날들이 뜨거운 추억속에 들이켜진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무한히 존대하고 내세워주며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창광원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종합적인 위생문화편의봉사기지이다.

지금도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환공된 우리 창광원에 모시였던 주체69(1980)년 3월 21일의 감격을 잊을수 없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배인과 나를 어버이수령님앞에 내세워주시며 우리들을 소개해주시였다. 정말 꿈만 같은 순간이였다. 우리들은 북받치는 격정을 누르며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를 몸가까이에서 따라섰다.

돌아보시는 곳마다에서 시종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우리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못견디게 어리여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리발실에 들리시여 리발실이 시원하고 설비들이 다 멋있어라고 하시였고 향수분무기앞에서 고르롭게 뿌려지는 향수도 쳐보시며 인민들이 좋아하겠다고, 아주 좋은 기계라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미용실에 들리시여서는 미용실을 이렇게 잘 꾸려놓으니 녀성들이 아주 좋아하겠다고 하시였고 목욕탕을 돌아보시면서는 대중탕도 잘 꾸렸고 개별탕에까지 한증과 초음파욕을 할수 있게 설비를 갖춘것은 아주 잘하였다고 만족해하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이뿐이 아니였다. 수영장을 돌아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창광원에서 자랑할만 한것은 수영관이라고 크나큰 흥분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날 창광원관리운영을 잘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나는 우리 수령님은 진정 인민들의 행복에서 최대의 기쁨과 만족을 찾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라는 것을 더욱 가슴깊이 느끼였다.

돌이켜보면 우리 창광원이 인민들이 즐겨찾는 봉사기지로 일떠서게 된데는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다.

지금으로부터 52년전 겨울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금은 나라살림이 어려워 수영장과 목욕탕 하나 변변한것이 없지만 앞으로 살림이 펴이면 수영장과 목욕탕을 멋들어지게 건설해야겠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날에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늘 잊지 않고계시다가 당 제6차대회를 앞두고 창광원건설을 발기하시고 그 건설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분은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주체68(1979)년 민족최대의 명절인 4월 15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창광원의 부지를 확정해주시였다.

설계초안과 형성사진도 보아주시며 나타난 부족점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훌륭히 완성시켜주시고 건물의 규모와 형식은 물론 그안에 들여놓을 설비들도 최신식으로 갖추도록 온갖 대책을 다 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

생각만 해도 가슴뜨거워진다.

숱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대중탕휴게실에 주단을 깔면 먼지가 많이 끼고 습기를 받으면 냄새가 나기때문에 좋지 않다고 일깨워주시던 귀중한 가르치심, 그곳에 갖추어진 옷장안을 보시고도 손님들의 옷에 자그마한 구김살이라도 갈세라 마음쓰시며 옷걸이를 걸어주도록 하신 다심한 보살피심, 봉사자들이 기능수준을 높이도록 각별한 조치도 취해주신 세심한 손길, 우리 인민들이 리용할 목욕탕과 온갖 떠려를 다 돌려주시였다.

주체100(2011)년 3월 23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 수중체조무용모범출연을 보아주시기 위하여 우리 창광원에 나오시였다. 수중체조무용모범출연을 보아주시는 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창광원의 물정화문제를 두고 깊이 마음쓰시였다. 그 한없는 사랑에 떠받들려 정수설비를 현대화하는 사업이 짧은 기간에 적극 추진되여 수영장과 물놀이장에는 더욱더 맑은 물이 차넘치게 되였다.

지금도 나의 귀전에는 완공을 눈앞에 둔 창광원건설장을 찾으시여 이제부터 당사업을 한번 잘해보라고 고무해주시던 우리 장군님의 절절한 음성이 뜨겁게 메아리치고있다. 당사업에서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고귀한 지침을 밝혀주시던 영광의 그날을 생각할수록 종업원들의 사상교양사업을 책임진 일군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갈 불타는 열정으로 마음은 세차게 끓어번진다.

우리 창광원을 종합적인 위생문화편의봉사기지로서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더 잘 이바지되도록 하는 길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빛내이는 길이 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슬하에서 성장한 당일군답게 이 땅우에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겠다.

창광원 초급당위원장 김 춘 심

박 봉 주 동 지

평양시안의 여러 단위 현지료해

【평양 9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가 평양시안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박봉주동지는 3대혁명전시판과 중앙식품원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즐겨찾는 과학문화교양기지답게 현대적으로 개건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다그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과 평양제약공장을 현지료해하면서 박봉주동지는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는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해주었으며 새로 일떠서는 건물들을 용도에 맞게 질적으로 건설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공화국창건 70돐을 성대히 경축한 기세드높이 자력갱생,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의 전투목표를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한편 박봉주동지는 국립무용학원건설장을 돌아보면서 련관단위들에서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을 원만히 보장해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박봉주동지 평양제약공장 현지료해

전당에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게 하자

통이 큰 작전, 결단성있는 실천으로

동림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최근 동림군의 일군들이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찾아하고있다. 그들은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거리들을 끊임없이 찾아내며 헌신적으로 일하고있다.

여기에는 군안의 일군들에게 인민에 대한 복무관점을 바로세워주고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 일해나가도록 옳게 이끌어주고있는 이곳 군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기풍이 그대로 슴배여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이 수령님식, 장군님식인민관을 지니고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내세우며 언제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인민을 위하여 뛰고 또 뛰는 참된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한다.》

군당위원회가 최근에 중시하고있는것은 일군들의 복무관점을 바로세워주기 위한 사업이다. 여기서 좋은 점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펼치기에 앞서 군급기관 일군들을 현실에 내보내여 실정을 손금보듯 알게 하고있는것이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초에도 군당위원회에서는 그해에 수행해야 할 전투목표를 세우기에 앞서 군급기관 일군들을 아래단위들에 집중적으로 파견하였다. 이때마다 군당위원회가 잘한것이 있다. 군급기관 당조직을 발동하여 일군들이 사전준비를 잘하도록 한것이다.

민류없는 준비밑에 군중속으로 들어간 일군들의 모습은 새로왔다. 따뜻한 정을 부어주며 군중과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일군들에 대한 평가는 좋았다.

결국 일군들은 해마다 년초에 벌써 군중의 목소리를 통해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많은 일감을 찾아쥐였다. 이에 기초하여 군당위원회는 더 높은 전투목표들을 세우게 되였다.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들이 세워진데 맞게 군당위원회가 잘한것은 실천과정을 통하여 아래단위 일군들의 복무관점을 바로세워주는데도 품을 들인것이다.

청강지구에 대한 자연흐름식 수도화공사과정을 놓고보면 그에 대하여 잘 알수 있다.

청강지구의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지에 나왔던 박문식군당위원장은 일부 일군들이 수도물을 가까운 곳에 우물을 파서 보장하려 한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렇게 되면 공사는 쉽게 할수 있겠지만 늘어나는 주민세대에 물을 충분히 보장할수 없었다.

방도를 모색하면 군당책임일군은 이미전에 발전소보수전투장에 나갔을 때 보았던 수질이 좋은 물원천이 생각났다.

그 물을 청강지구까지 끌어온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래서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바른 시기나 지난 뒤에 이 일을 전개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였다.

바로 이러한 때 군당책임일군은 단호한 결심을 내리였다.

군당책임일군은 현지에서 일군협의회를 열고 그들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되여 청강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한 대담한 작전이 펼쳐지게 되였다.

산중턱에 큼직한 물주머니며 정화장을 만들기 위한 공사와 함께 근 20리나 되는 수도관놓이기작업이 립체적으로 벌어졌다. 부족되는 자재로 하여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고있을 때 군당일군들은 그 해결을 위해 뛰여다니였으며 돌격전의 앞장에서 이신작칙하면서 전투원들을 이끌어나갔다. 그들의 뒤를 따라 군안의 일군들과 공장, 기업소의 로동자들이 떨쳐나섰고 주민들도 이 공사에 합세하였다.

이렇게 되여 청강지구의 물보장을 위한 자연흐름식수도화공사가 짧은 기간에 끝나게 되였다.

판서팔경의 하나인 동림폭포일대에 인민을 위한 훌륭한 봉사기지를 일떠세우는 과정도 군당일군들의 결단성있는 실천으로 군안의 일군들에게 두철한 복무관점을 심어준 좋은 실례들중의 하나이다.

사실 군자체의 힘으로 동림폭포일대에 봉사기지를 꾸려보자고 할 때 너무나 방대한 공사여서 누구나 할것없이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군당책임일군은 인민을 위한 일인데 주저할것이 무엇인가고 하면서 강력한 집단을 여기에 파견하였다. 그리고 자주 현장에 나가 걸린 문제를 즉석에서 풀어주면서 전투원들의 심장에 불을 달았다.

이렇게 되여 기초굴착전투가 진행된지 얼마 안되여 야외물놀이장이 건설되고 그옆에는 실내물놀이장과 여러가지 운동을 할수 있는 건물이 일떠서게 되였다. 건설초기에 나오는 비료성분이 많은 수천㎥의 감탕이 농장들에 운반되여 농사일에 큰 보탬이 되였고 건설된 물놀이장은 올해 그처럼 무더운 날씨에 누구나 즐겨 찾아오는 곳으로 되였다.

지금 실내물놀이장건설이 한창인데 이것이 완성되면 인민들의 기쁨을 더해주게 된다.

그뿐이 아니다. 수십정보의 해파리양식장건설과 수백m의 청계지구 도로포장이 진행되고 해마다 수백세대의 살림집건설이 진행되여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아가게 된데는 군안의 일군들이 결단성있는 실천으로 맡겨진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게 한 군당일군들의 참신한 일본새가 깃들어있다.

이처럼 군안의 일군들이 통이 큰 작전을 펼치고 결단성있는 실천으로 인민생활에 이바지하는 좋은 일을 많이 하도록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는 군당일군들의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된다.

본사기자 장철범

《우리 가정수첩》이야기는 계속된다

◎전천군상업관리소 일군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대중이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있으며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이 최우선, 절대시되는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실시되고있다.》

전천군의 상점들에 가면 제일먼저 눈에 뜨이는것이 《우리 가정수첩》이다.

봉사구역안의 매 세대별에 따르는 가족수와 그들의 생년월일, 주문받은 상품과 그에 대한 공급정형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있는 수첩을 보느라면 인민의 충복으로 살며 일하고있는 봉사자들의 해끗한 마음은 물론 인민을 제일로 여기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에 대하여서도 페부로 절감하게 된다.

초급당위원회는 자본주의가 휩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종업원들에게 깊이 새겨주어 누구나 맡사무무성신을 안고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게 하고있다.

지난 8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전천군상업관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기쁨에 겨워있었다. 바로 그날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전천군상업관리소를 찾아주시여 상업봉사활동에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 뜻깊은 기념일이였던것이다.

력사의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상점일군들이 상점을 더 잘 꾸리고 봉사성을 높여 나비가 꽃을 찾아오듯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인민의 봉사자들이 안고 살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어느해 8월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천공업품상점을 찾으시여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고있는 봉사자들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며 사회주의본태가 살아있다는 믿음이 어린 교시도 주시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현지지도기념일이 오면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소개실과 현지지도단위들에 대한 참관을 의의있게 조직하여 종업원들의 가슴속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시키였다.

지난 8월의 그날도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현지지도로정을 돌아보며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의 나날에 있었던 일들을 감회깊이 새겨보았다.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 빵도업적탄위들을 새롭게 꾸리던 일이며 어깨에 피멍이 지도록 거름을 운반하고 손이 허갈라지도록 척박한 땅들을 걸구어 수십정보의 밭을 기름진 땅으로 전변시키던 일들…

특히 《우리 가정수첩》을 만들어 실속있게 운영하던 일들은 소중한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개학날을 맞으며 신입생들이 있는 가정들에 학용품들을 마련해가지고 찾아가던 일, 어머니날에 원료기지에서 자체로 생산한 원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녀성공로자들을 찾아가 축하해주던 일, 전쟁로병들의 생일을 잊지 않고 꼭꼭 닭곰과 여러가지 당과류를 안고 찾아가 축하해주던 일 그리고 《우리 가정수첩》을 리용하는 과정에 어려운 세대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한가지라도 풀어주기 위해 안타까이 뛰여다니던 이야기…

군인의 주민들을 찾을 때마다 그들의 키를넘친 모습에서 인민의 봉사자된 긍지를 뜨겁게 느끼지 않았던가.

이날 종업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장정만초급당위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가정수첩》, 이 여섯글자를 무심히 대하지 맙시다. 이것에는 인민의 봉사자들이 인민을 위해 성실히 복무함에 대한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가 비껴있습니다. 우리모두 자기가 담당한 봉사구역안의 모든 가정들을 친혈육처럼 여기고 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나갑시다.》

그날 초급당일군의 이야기에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전세대들의 숭고한 투쟁기풍을 본받아 인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더 잘해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하지만 《우리 가정수첩》을 운영해나가는 과정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김순옥군상업관리소장이 이곳에 배치되여온것은 3년전이였다. 그의 심중은 무거웠다. 봉사활동을 벌려나가는데서 부족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던것이다.

제일 어려운것이 수십정보의 원료기지를 다루는 일이였다.

녀성들의 힘으로 봉사활동도 벌리면서 원료기지를 관리한다는것은 헐치 않았다.

이런 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화선식정치사업으로 종업원들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었다. 여기에서 힘을 얻은 소장은 신들메를 더 바싹 조여매고 무섭게 일하였다. 그는 원료기지전투장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종업원들을 수령의 유훈관철전에로 불러일으켰다. 궂은일, 어려운 일에 남먼저 몸을 내대군 하는 그의 뒤를 따라 종업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종업원들의 피타는 노력으로 원료기지에서 원료생산을 늘이고 누에고치생산을 위한 뽕밭비배관리를 알심있게 하여 그 덕을 크게 보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축산도 잘하도록 소장의 사업을 적극 밀어주었다. 일군들은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없다는 투철한 관점을 지니고 일관을 통이 크게 벌려 장풍덕골안에 30정보의 골판을 조성하고 축산토대도 훌륭히 갖추어놓았다.

산나물철에는 계절을 놓치지 않고 많은 산나물을 채취하여 군안의 주민들에게 공급하였고 국가적인 중요대상건설장들에 아낌없는 지원사업도 진행하였다.

이 나날 전천군상업관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을 위한 길에 헌신의 자욱을 뚜렷이 새길수 있었다.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 살며 일해나가는 이런 봉사자들이 있어 《우리 가정수첩》이야기는 계속된다.

본사기자 최영길

복무관점이 투철할 때

개천시 묵방협동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사업의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오직 인민들이 바라고 좋아하는 일을 하여야 하며 무슨 일을 하든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지난 3월 중순 개천시 묵방협동농장 초급당위원장의 사무실에서 열린 협의회의 분위기는 엄엄하였다. 초급당위원장의 얼떨 목소리가 울리였다.

《조건이 나쁘기때문에 할수 없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소. 그래가지고 언제 농장원들이 덕을 볼수 있겠소.》

김병철초급당위원장이 격해진 원인이 있었다.

산골짜기를 말이 닳도록 오르내리며 샘줄기를 찾아낸 이곳 일군들은 철초에 자연수에 의한 먹는물보장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여 농장원들에게 수질이 좋은 물을 공급해줄것을 당결정에 토아박고 공사에 착수했었다. 그런데 제3작업반공사장에서 문제가 제기되였다. 생각했던것보다 물원천이 적었던것이다.

공사를 시작할 때는 옥옥하던 사람들속에서 일시 동요가 생겼다.

노력하다가 못하는것은 할수 없다. 제3작업반원들도 실정을 잘 알고있는데 그들만 리해하면 되지 않겠는가. …

농장의 한 일군이 깊은 생각없이 던진 말을 듣고 초급당일군이 내린 결심은 어떠했던가.

(농장원들을 위해서는 조건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 한개 작업반이 아니라 한세대를 위해서라도 공사는 반드시 해야 한다.)

다음날 초급당일군은 제3작업반마을의 웃지구에서 살고있는 어느 한 가정의 세대주를 찾아갔다. 오래전부터 샘물을 먹고있는 집주인은 초급당일군이 작업반농장원세대들에 수질이 좋은 물을 공급해주기 위해 고심하고있다는것을 알고 적극 도와나섰다.

다음날부터 초급당일군은 낮에는 로전에서, 밤에는 줄창 해불을 켜들고 공사가 벌어지고있는 현지에서 살았다. 집채같은 암반이 나타났을 때에는 정대와 함마로 까내며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었다. 얼마후에는 제3작업반농장원세대들도 수질이 좋은 물을 공급받게 되였다.

지난 8월초 초급당위원장이 묵방천에 다리를 건설할것을 말기했을 때였다.

문제로 된것은 이 일에 발벗고나서야 할 일부 일군들속에서 다른 공사의 절박성을 꺼드는것이였다. 그들의 내심은 다리를 건설해놓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리용하겠는데 꼭 농장에서 해야 되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들을 보는 초급당일군의 뇌리에는 지난해 이곳에 임명되여왔을 때 한 농장원이 찾아와 자기 아들이 묵방고급중학교에 다니는데 장마철에 묵방천의 물이 불어나면 수백m를 에돌아다닌다고 하던 말이 떠올랐다.

초급당일군은 그 사실을 말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네일, 내일을 가리면 농장원들을 위해 언제 가도 좋은 일을 해놓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설사 다리를 한평의 농장원자녀가 리용한다고 해도 무조건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 일군들부터가 앞세를 메고 땀을 흘려봅시다.》

이렇게 되여 다리를 건설하기 위한 일이 농장적인 사업으로 벌어졌다. 원창범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떨쳐나섰다. 일주일후에는 다리가 생겨났다.

우리와 만난 초급당부위원장은 그때 일을 돌이켜보며 말했다.

《다리를 오가면서 기뻐하는 농장원들과 그 자녀들을 보면서 초급당위원장은 농장에 오자마자 다리를 건설할 생각을 하였는데 왜 농장에서 오래동안 사업해온 우리 일군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가 하는 자책감에 머리를 들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복무관점에서 오는 차이였습니다.》

옳은 말이였다.

이곳 초급당위원회 사업은 일군들로 하여금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찾아하자면 복무관점이 투철해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새기게 한다. 바로 그렇게 하는것이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참된 당일군들의 가장 리상적인 모습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해놓은 일에 만족을 모르고

은파군량정사업소 초급당위원회 일군들

은파군량정사업소는 군적으로 힘있는 집단, 전투력이 강한 단위로 소문났다.

우리는 그 비결을 단위의 후방토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종업원들의 생활을 친혈육의 정으로 보살펴주는 이곳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기풍에서 찾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이때까지 후방토대를 갖추기 위한 사업을 진행한것은 결코 그 어떤 형식을 차리거나 평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에서 바라는 높이에 이르자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자그마한 성과에 만족하여 전진을 멈추어서야 되겠습니까. …》

그의 말이 일군들의 심금을 울렸다. 이렇게 되여 온실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였다.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필요한 자재를 해결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였고 이신작칙으로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켜 마침내 남새온실을 훌륭히 건설하였다. 여기에서 오이며 고추, 부루, 쑥갓을 비롯한 남새들을 계절이 따로 없이 수확하여 종업원들에게 공급할수 있게 되였다.

일군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큼직한 양어장을 건설하고 많은 새끼잉어를 넣었다. 또 올여름에는 양과 염소를 비롯한 풀먹는짐승들을 대대적으로 기를 목표를 세웠다.

끊임없이 세워지는 전투목표들에 대한 참관을 의의있게 조직하여 종업원들의 가슴속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시키였다.

지난 8월의 그날도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현지지도로정을 돌아보며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의 나날에 있었던 일들을 감회깊이 새겨보았다.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 빵도업적탄위들을 새롭게 꾸리던 일이며 어깨에 피멍이 지도록 거름을 운반하고 손이 허갈라지도록 척박한 땅들을 걸구어 수십정보의 밭을 기름진 땅으로 전변시키던 일들…

특히 《우리 가정수첩》을 만들어 실속있게 운영하던 일들은 소중한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개학날을 맞으며 신입생들이 있는 가정들에 학용품들을 마련해가지고 찾아가던 일, 어머니날에 원료기지에서 자체로 생산한 원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녀성공로자들을 찾아가 축하해주던 일, 전쟁로병들의 생일을 잊지 않고 꼭꼭 닭곰과 여러가지 당과류를 안고 찾아가 축하해주던 일 그리고 《우리 가정수첩》을 리용하는 과정에 어려운 세대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한가지라도 풀어주기 위해 안타까이 뛰여다니던 이야기…

군인의 주민들을 찾을 때마다 그들의 키를넘친 모습에서 인민의 봉사자된 긍지를 뜨겁게 느끼지 않았던가.

이날 종업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장정만초급당위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가정수첩》, 이 여섯글자를 무심히 대하지 맙시다. 이것에는 인민의 봉사자들이 인민을 위해 성실히 복무함에 대한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가 비껴있습니다. 우리모두 자기가 담당한 봉사구역안의 모든 가정들을 친혈육처럼 여기고 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나갑시다.》

그날 초급당일군의 이야기에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전세대들의 숭고한 투쟁기풍을 본받아 인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더 잘해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하지만 《우리 가정수첩》을 운영해나가는 과정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김순옥군상업관리소장이 이곳에 배치되여온것은 3년전이였다. 그의 심중은 무거웠다. 봉사활동을 벌려나가는데서 부족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던것이다.

제일 어려운것이 수십정보의 원료기지를 다루는 일이였다.

녀성들의 힘으로 봉사활동도 벌리면서 원료기지를 관리한다는것은 헐치 않았다.

이런 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화선식정치사업으로 종업원들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었다. 여기에서 힘을 얻은 소장은 신들메를 더 바싹 조여매고 무섭게 일하였다. 그는 원료기지전투장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종업원들을 수령의 유훈관철전에로 불러일으켰다. 궂은일, 어려운 일에 남먼저 몸을 내대군 하는 그의 뒤를 따라 종업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종업원들의 피타는 노력으로 원료기지에서 원료생산을 늘이고 누에고치생산을 위한 뽕밭비배관리를 알심있게 하여 그 덕을 크게 보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축산도 잘하도록 소장의 사업을 적극 밀어주었다. 일군들은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없다는 투철한 관점을 지니고 일관을 통이 크게 벌려 장풍덕골안에 30정보의 골판을 조성하고 축산토대도 훌륭히 갖추어놓았다.

산나물철에는 계절을 놓치지 않고 많은 산나물을 채취하여 군안의 주민들에게 공급하였고 국가적인 중요대상건설장들에 아낌없는 지원사업도 진행하였다.

이 나날 전천군상업관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을 위한 길에 헌신의 자욱을 뚜렷이 새길수 있었다.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 살며 일해나가는 이런 봉사자들이 있어 《우리 가정수첩》이야기는 계속된다.

본사기자 최영길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에로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길주함판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한 영예군인을 위해 바친 진정

지난 3월말 한 영예군인이 송전리에 왔다는것을 알게 된 룡천군당위원회에서는 군급기관 책임일군들의 긴급협의회를 열고 그를 돕기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히 진행하였다.

다음날 송전리에 나간 군당일군은 료양소가까이에 영예군인의 집터를 잡아주고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세멘트를 비롯한 건설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하였다.

일군들의 깊은 관심속에 살림집건설은 짧은 기간에 와닥닥 끝나게 되였으며 그 영예군인은 여러칸의 살림방과 부엌, 위생실 등이 있는 훌륭한 살림집에서 근심걱정없는 생활을 누리면서 병치료를 받을수 있게 되였다.

이뿐아니라 군당일군들은 바쁜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영예군인의 치료정형을 알아보고 담당의사, 간호원들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진행하면서 그의 병치료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도록 하였다.

군당위원회일군들의 모습을 보면서 군안의 일군들과 주민들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페부로 절감하게 되였으며 고마운 어머니당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고 있다.

본사기자

가장 훌륭하게, 가장 완벽하게

은천군 덕천리당위원회에서

얼마전 은천군 덕천리에 대한 취재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한폭의 그림마냥 펼쳐진 10일유치원의 전경에 이끌려 그리로 걸음을 옮기였다. 아이들의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는 이 행복의 요람이 일떠서게 된 사연은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멎해전 어느날 농장일군들의 협의회에서는 10일유치원개건과 관련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본래의 낡은 건물을 통채로 헐어버리고 부지면적이 종전의 두배이상 되는 새 건물을 일떠세우게 설계된것을 두고 모두가 만족해하였다.

그러나 리당일군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불현듯 여름철에 산물에서 좋아라 물장구치며 놀군 하던 유치원어린이들의 모습이 떠올랐던것이다.

이윽고 야외물놀이장과 함께 실내물놀이장을 건설하는 문제가 토의되였다.

《이전에도 야외물놀이장은 있었지만 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리용하지 못했소. 그러니 물놀이장의 물보장을 위한 양수장을 따로 건설합시다.》

이렇게 한가지 또 한가지 설계안에 보충해나가는 리당일군의 모습을 보며 협의회참가자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가장 훌륭하고 완벽하게, 바로 이것이 후대들을 위한 창조의 기준임을 그들은 깊이 깨달았다.

유치원건설은 곧 시작되였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유치원을 당의 의도대로 훌륭히 꾸리기 위해 많은 품을 들이였다. 리당일군과 유치원의 책임교양원을 경상유치원에 보내여 내무실계와 장식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활영해오도록 하였다.

한편 수도의 백화점들에서 제일 좋은 운동기재와 놀이감들을 사오게 하였다. 자연관찰실의 사계절풍경을 더 잘 형상하기 위해 유치원 원장이 직접 강원도애육원과 과학기술전당 어린이문관에 가보도록 하였고 특두, 기장을 비롯한 농토산물을 현물로 보여주는데 필요한 조치도 취하였으며 각종 새들의 박제품을 구입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철기마다 과일과 남새를 정상적으로 먹을수 있도록 여러칸의 창고를 짓게 하고 아이들이 시력장애를 받을세라 좋은 창가림도 마련해주었으며 잠방에 포근한 새 담요들을 갖추어주는것도 놓치지 않았다. 훌륭히 꾸려진 유치원에 자식들의 손목을 잡고 처음으로 들어서던 날 부모들모두가 눈굽을 적시였다.

그러나 리당일군들은 만족을 몰랐다.

지난해 여름 유치원을 돌아보던 리당일군은 땀을 흘리며 밥을 먹고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고 생각이 깊어졌다.

유치원일군은 어쩔수 없다고 하였지만 리당일군은 그것이 마음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방도를 모색하던 그는 야외에 식당을 건설할것을 발기하였다. 얼마후부터 아이들은 바람이 잘 통할수 있게 설계된 독특한 식당에서 식사를 할수 있게 되였다.

교양실들에 교육교양의 현대화, 정보화실현을 위한 물질적토대가 구축되게 된데도 리당일군들의 뜨거운 진정이 깃들어있다.

현대적인 교육조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여러대의 콤퓨터와 액정텔레비죤 등을 마련하는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 농장의 일부 일군들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자금을 쓸데가 많은데 아직 놀음밭에 모르는 철부지들을 위해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겠는가, 더우기 농촌의 유치원인데 지금의 수준도 대단하지 않은가 하는것이 그들의 전해였다.

그때 리당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농촌의 아이들도 도시아이들 못지 않게 분명하고 훌륭하게 키우려는것이 우리 당의 뜻이요.》

교육조건과 환경이 개선되니 교육의 질이 보다 높아지고 그것은 그대로 훌륭한 성과로 이어졌다. 올해에만도 이곳 책임교양원은 전국교양정협발표회에서 1등을 하였고 유치원어린이들은 전국어린이들의 예술축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가장 훌륭하게, 가장 완벽하게!

이 기준을 언제나 심장깊이 새기고 이곳 리당일군들은 오늘도 인민들과 후대들을 위한 멸사복무의 자욱을 쉬임없이 찍어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순영

렬차를 함께 타고 달리며

청진철도국 청진청년렬차승무대 초급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들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러일으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언제인가 김명철초급당위원장은 렬차에 올라 청승지도를 한적이 있었다. 렬차에서는 1중대 5소대원들이 승무하고있었다.

렬차가 함흥역을 출발하였을 때였다. 렬차원들은 손님들앞에서 차내질서와 풍종도덕을 잘 지킬데 대한 내용으로 노래와 선동을 배합한 선전활동을 벌리였다. 그런데 응당 들릴줄로 알았던 손풍금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알아보니 손풍금수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소대에서 나갔던것이다. 현재 다른 손풍금수를 키우고있는데 아직은 손님들앞에 나설 정도로 기량이 높지 못하다고 하였다.

리행자들에게 당정책을 적극 해설선전하는데서도 미흡한 점들이 있었다.

청승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해당 당세포와 청년동맹조직에 손풍금수를 키우는 사업을 적극 밀어줄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한편 선전활동에 손풍금, 북을 비롯한 악기들과 함께 음향증폭기재들도 널리 리용하도록 대책을 세웠다.

이 일을 두고 초급당일군은 자기의 사업을 돌이켜보게 되였다.

만약 그가 청승을 하지 않았다면 승무과정에 진행되는 선전사업에서 부족점이 무엇인지 곧 왔을것이다.

이 사실은 일군들이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단위의 실태를 료해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한 계기로 되였다.

그후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 행정일군들의 청승지도계획을 월, 분기별로 구체적으로 세우고 어김없이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모든 일군들이 청승과정에 제기되는 전형을 한건이상씩 장악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분공조직을 치밀하게 하였다.

정명식대장부터 앞장에 섰다. 그가 3중대 5소대원들과 함께 렬차에 올라 청승지도를 할 때였다.

한 렬차원이 호각은 목에 걸고 있으면서도 렬차출발예령신호를 주지 않는것을 보게 되였다. 해당 역의 안내원들이 렬차출발예령신호를 준다고 하여 지도모르게 그의 머리속에 요령주의적인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제정된 규정과 규칙을 어김없이 지키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게 하였다.

승무대일군들이 렬차를 타고 달리며 렬차원들이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도록 이끌어준 이야기는 많다.

어느해 겨울 초급당위원장이 청승지도를 할 때였다.

길주역에서 한 할머니가 렬차에 올랐다.

3중대 1소대의 렬차원은 할머니를 부축하고 손짐도 들어주면서 례절있게 맞이하였다. 그리고 할머니와 다정히 이야기도 나누며 기쁘게 해주었다.

초급당일군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청승을 마친 그는 렬차원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군사복무시절에 있었던 사실을 들려주었다. 대소한의 눈보라를 헤치며 강행군을 다그치는 자기들에게 군인가족들이 모두 달려나와 더운물고후를 안겨주었다고, 고향과 멀리 떨어진 초소에서 친어머니의 따뜻한 정을 느끼면 그날을 잊을수 없다는 당일군의 목소리는 젖어있었다.

다음날부터 소대원들은 더운물을 준비해가지고 렬차에 올라 손님들에게 봉사하기 시작하였다. 렬차원들의 소행에 대한 손님들의 반향은 대단했다.

일군들이 렬차를 타고 승무원들과 숨결을 같이하며 정황에 맞게 정치사업을 벌리는 과정에 승무대사업에서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만경대고향집의 샘물을 정히 떠서 손님들에게 봉사하고있는 사실이며 렬차에 오른 산모를 성의껏 보살펴준 이야기를 비롯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영예등록장에 등록된 소행자료들은 수없이 많다. 그 나날 모든 청년동맹조직들이 청년전위3중모범초급단체, 청년전위2중모범초급단체의 영예를 지니였다.

경험은 일군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함께하며 사상교양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릴 때 단위사업에서 비약이 일어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승표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자

옳은 방법론이 성과를 담보한다

함주군 평풍덕염소목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산이 많은 우리 나라에서는 어데서나 염소, 토끼를 비롯한 풀먹는짐짐승을 많이 기를수 있습니다.》

수천정보의 드넓은 풀판과 급이급이 뻗어나간 100여리 방목도로에 흰구름마냥 염소떼 흐르는 함주군 평풍덕염소목장.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목장에 새겨져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높은 축산물생산성과로 빛내여갈 한마음으로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이들은 올해에만도 염소마리수를 1만여마리로 늘이고 염소기르기과정에 나오는 젖으로 백수십리의 요구르트, 치즈, 빠다, 젖두부와 같은 젖가공품을 생산하여 군내주민들의 생활향상에 기여하였다.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정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이곳 일군들이 거둔 성과는 무엇을 보여주고있는가.

경쟁열의를 더욱 고조시켜

사실 올해 염소마리수와 젖생산을 늘이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때까지만 하여도 일군들은 선뜻 결심을 내리지 못하였다. 령도업적단위답게 사상교양거점들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30여개 호동의 염소우리를 개건, 10여동의 종업원살림집과 청년합숙을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해야 하는것을 비롯하여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이처럼 일감이 방대하였지만 일군들은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올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새겨보며 축산물생산에서 기어이 혁신을 일으킬 결의를 다지였다.

일군들은 밤이 깊도록 뛰면서 지난 시기 염소사양관리와 젖생산과정에 분장들에서 거둔 성과와 교훈을 분석하였다.

특히 실적에서의 차이가 왜 생겼는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았다. 그 과정에 일군들은 일부 종업원들속에서 경쟁열의가 높지 못하였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분발해나섰다가도 실적에서 어지간한 차이가 생기자 손때를 놓고 나앉군 하였다. 사회주의경쟁이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기 위한 대중운동이라고 볼때 이것은 심중한 문제였다.

일군들은 사회주의경쟁을 옳은 방법론이 없이 조직진행한 자기들의 일본새를 심각하게 돌이켜보고 분발하였다. 특히 모든 종업원들이 축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에 높은 열의를 가지고 참가할수 있는 실효성있는 방도를 찾아 실천해나갔다.

두가지 문제가 중시되였다. 하나는 분장별경쟁이고 다른 하나는 종업원별경쟁이였다.

분장별경쟁에서는 본보기를 창조하여 기준을 명백히 세운 다음 일반화하는 원칙을 세웠다. 일군들은 등봉분장을 본보기로 내세우고 온 목장에 이 분장을 따라앞서기 위한 경쟁열풍을 일으켰다. 클판조성과 염소사양관리, 새끼염소생산, 수의방역사업을 비롯하여 이 분장에서 창조된 산모범이 널리 일반화되게 되였다. 이것은 집단주의위력을 백배로 해주었다. 모든 분장들에서 앞선 단위를 따라앞서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일군들은 다음으로 염소무리별담당제를 실시한데 맞게 종업원별사회주의경쟁을 잘 조직하였다. 어기서 특징적인것은 총화평가사업을 명백한 실적을 놓고 하는것이였다.

일군들은 전투목표수행과 관련한 조항별평가기준과 그에 따르는 점수를 과학적으로 규정하였다. 항목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였으며 그에 따르는 점수와 삭감점수가 명백히 규정되였다. 이 세척을 놓고 종업원들이 자기의 실적에 따르는 정치적 및 물질적평가를 만도록 하였다.

이런 경쟁총화평가는 누구나 사회주의경쟁에 강한 의욕을 가지고 스스로 떠여들게 하는 실효성이 높은 방법으로 되였다. 그러니 목장에서 사회주의경쟁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화고히 전환되게 된것은 필연적이였다.

기술수준제고이자 축산물생산성과

축산도 과학축산을 하여야 축산물생산을 늘이고 경제적실리를 보장할수 있다.

목장일군들이 이것을 명심하고 모든 계기와 가능성을 리용하여 종업원들이 과학축산의 담당자, 주인공으로 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간것도 경험적이다.

지난 시기 목장에서는 종업원들을 축산과학기술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기술학습을 자주 진행하였다.

그런데 일부 종업원들은 기술학습내용들을 원리적으로 깊이 있게 리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원인을 분석하던 과정에 일군들은 기술학습방법에 문제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종업원들의 수준이 같지 않은 조건에서 일률적으로 기술학습제강의 내용을 소화하라고 해서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옳은 방법론이 있어야 하였다.

이로부터 일군들은 기술학습을 목장의 구체적현실과도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그 실효를 높이기로 하였다.

그들은 종업원들속에서 지난 시기 염소기르기과정에 창조된 좋은 경험들을 기술학습시간에 알려주도록 하였다.

실례로 왜 젖짜는 염소는 질좋은 클판에서 풀과 나무잎가지를 충분히 뜯어먹게 해야 하며 운동을 너무 심하게 시키지 말아야 하는가, 염소가 소금을 즐겨먹는 리유는 어디에 있는가 등 실천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다매체편집물을 통한 새 기술보급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이런 기술학습은 축산물생산에서 큰 은을 나타냈다. 기발한 착상들이 종업원들속에서 많이 나왔던것이다.

어느날 기술학습과정에 종업원들속에서는 이런 의견이 제기되였다. 젖짜는 염소들에게 단백함량이 높은 먹이를 덧먹이로 주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지 않겠는가.

타당한 의견이였다. 젖을 많이 생산하려면 염소에게 단백함량이 높은 먹이를 충분히 먹이는것이 매우 중요하였기때문이다.

이로부터 목장에서는 젖짜는 염소들에게 매일 적당한 량의 콩물을 먹이는것과 함께 《애국콩》, 오리새, 목감자와 같이 영양가가 높은 먹이작물을 재배하여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혁신적으로 전개하였다.

결과 목장에서는 젖생산량을 지난 시기에 비하여 110%로 장성시키는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경험은 일군들이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뚫지 못한 난관이 없다는 투철한 관점밑에 대중의 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전개한다면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정책관철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황철민

수의방역이자 축산물증산

태탄군 류정협동농장에서

수의방역사업은 축산업에서 생명과 같다. 토끼기르기에서도 다를바 없다. 태탄군 류정협동농장에서의 토끼기르기 경험이 이것을 말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의방역사업을 잘하여야 집짐승의 폐사률을 낮추고 축산물생산을 안전하게 할수 있습니다.》

몇해전 농장에서는 토끼기르기문제를 놓고 일군들의 협의회가 열리였다.

협의회장에서는 한동안 말없이 난감해하는 눈빛들만 오고갔다.

그럴만도 하였다.

토끼는 그 어느 집짐승보다 예민하고 병에 쉽게 걸리기때문에 기르기가 헐치 않았다. 이로부터 일부 작업반들에서 토끼기르기를 해왔으나 중도에서 그만두고말았다. 농장세대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나니 적지 않은 사람들속에서 토끼기르기에 신심을 가지지 못하고있었다.

이때 리당위원장이 말했다.

축산이 잘되고 못되는가는 집료 주어진 환경과 조건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당의 축산정책을 말로써가 아니라 심장으로 접수하고 그 관철을 위하여 끝까지 노력한다면 성과를 거둘수 있다.

그의 말은 일군들을 분발시켰다.

일군들은 조건을 론하기 전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 립장에서 토끼기르기를 내밀었다. 여기서 이들이 놓치지 않은것이 있다. 수의방역사업이였다.

축산작업반의 토끼기르기과정을 놓고보자. 일군들은 토끼기르기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목표밑에 축산작업반에 토끼우리를 새로 일떠세우기로 작정하였다. 이때 그들이 깊은 관심을 돌린것은 토끼우리설계이다. 토끼를 잘 기르자면 토끼의 생리적특성과 수의축산학적요구에 맞는 장소와 합리적인 우리구조를 보장하여야 하기때문이였다.

작업반초급일군들은 전문단위들을 찾아다니며 배우기도 하고 서로 마주앉아 토론도 거듭하였다. 서로의 힘과 지혜가 합쳐지는 속에 마침내 아담하면서도 덩지가 큰 토끼우리가 일떠서게 되였다.

특징적인것은 매개 토끼우리가 통풍이 잘되고 오수가 잘 빠지게 되여있는것이다. 바닥이 얼마 젖지 않으니 종전처럼 토끼우리바닥의 깔판을 자주 바꾸어주지 않아도 되였다. 또한 청소를 비롯한 위생관리에 편리하여 그만큼 관리공들이 수의방역사업에 더 큰 힘을 넣을수 있었다.

이들은 여기에 만족할수 없었다. 건물을 일떠세우는것 못지 않게 사양관리 역시 간단치 않았다.

하지만 작업반초급일군들과 관리공들은 방역이자 증산이라는 관점에서 철저한 수의방역체계를 세워놓고 새끼토끼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갔다.

새끼토끼는 대체로 대기습도가 높거나 젖은 물을 먹으면 쉽게 설사병에 걸린다. 이로부터 작업반에서는 그늘에서 어느 정도 물기를 없앤 풀을 먹이로 리용하며 일단 설사병에 걸린 개체는 무조건 격리시켜 치료하도록 하였다.

또한 젖먹는 시기에 토끼풀과 같이 영양가가 높으면서도 소화되기 쉬운 만문한 풀을 먹여 새끼토끼들이 자주 걸릴수 있는 소화불량증이나 위장염 등의 질병도 예방하였다.

이와 함께 이들은 작업반원들이 호동 및 먹이가공실출입규정은 물론 토끼사양관리에 리용하는 공구들의 소독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수의방역과 관련한 문제들을 어느 한가지도 놓치지 않았다. 이들의 노력은 훌륭한 성과를 안아왔다. 축산작업반에서는 해마다 토끼마리수를 무쩍 늘여 농장세대들에도 토끼를 공급해주었다.

이 나날 농장일군들은 축산작업반에 자주 나와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는 한편 이 작업반의 토끼사양관리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이렇게 되여 다른 작업반들과 농장세대들도 토끼기르기에 신심을 가지고 달라붙게 되였다.

지금 농장에서는 토끼기르기를 꾸준히 내민 결과 실지 덕을 보는 세대들이 많아지고있다.

본사기자 방영진

인공풀판조성에 힘을 넣어

강동군 구빈축산전문협동농장에서

강동군 구빈축산전문협동농장은 풀먹는짐짐승을 많이 기를데 대한 당정책을 일관성있게 관철하여 그 덕을 단단히 보고있는 단위로 널리 알려져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축산을 적극 발전시키고 온실남새와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하여 더 많은 고기와 남새, 버섯이 인민들에게 차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뜻깊은 올해에 더 많은 젖을 생산하기 위해 농장일군들속에서는 어려가지 문제들이 심각하게 론의되였다. 풀판조성, 겨울철먹이확보, 수의방역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업중에서도 일군들의 관심을 모은것은 모든 작업반마다 인공풀판을 조성하여 젖소들의 먹이를 해결하는 문제였다.

일군들이 여기에 주목을 돌리게 된데는 사연이 있었다. 그것은 염소먹이문제는 얼마든지 자연풀판을 리용하여 해결할수 있었으나 젖소들을 염소들처럼 산골짜기들을 따라다니며 방목한다는것이 결코 헐치 않았기때문이였다. 뿐만아니라 인공풀판을 많이 조성하면 겨울철먹이도 원만히 해결할수 있었다.

일군들은 작업반마다 인공풀판을 조성해야 먹이문제를 원만히 풀고 더 많은 젖을 생산할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자체의 힘으로 인공풀판을 조성한다는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다.

하지만 조건이 불리할수록 완강하게 내밀어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명심한 일군들모두가 새로운 각오를 안고 분발해나섰다. 이렇게 되여 인공풀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였다. 일군들부터 클판조성사업에 너도나도 어깨를 들이밀었다.

돌이 많고 잡관목과 잡초뿌리들이 뒤엉킨 땅을 갈아엎어야 하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일군들은 당의 축산정책을 기어이 관철하겠다는 각오로 심장을 불태우며 이 신작직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갔다.

방목공들도 이른새벽부터 젖소를 방목하면서 여가시간에 돌도 추어내고 웅뎅이도 메우며 더 좋은 래일을 위해 풀판개간전투를 벌려나갔다.

이렇게 개간한 풀판에 농장에서는 질좋은 거름을 내고 단백함량이 높은 자주풀자리풀을 비롯한 여러가지 먹이풀들을 심었다.

풀장을 볼 때까지 실천하려는 일군들의 이악한 노력에 의하여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많은 면적의 인공풀판이 조성되게 되였다. 결과 젖소먹이문제가 원만히 풀리게 되였으며 젖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훨씬 늘어나고 그것은 그대로 젖가공품생산성과로 이어졌다.

이것은 당의 축산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늘 머리를 쓰고 방법론을 찾아 완강하게 밀고나가고있는 이곳 일군들의 사업기풍이 안아온 열매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강철

양기르기를 지방의 특성에 맞게

온성군 왕재산협동농장 축산작업반에서

온성군 왕재산협동농장 축산작업반에서 먹이원천이 풍부하고 방목지와 먹이기지를 잘 꾸릴수 있는 자기 지방의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많은 양을 기르고있다. 이 성과는 초급일군들과 작업반원들이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좋은 조건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해 이악하게 노력한 결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축산작업반과 비육분조들을 잘 꾸리고 실리있게 운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몇해전 농장일군들은 이 작업반의 풀먹는짐짐승기르기실태를 놓고 작업반초급일군들과 마주앉았다.

오래전부터 당에서는 풀먹는짐짐승기르기를 중요한 정책적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정책에 비추어볼 때 우리 농장이 뒤떨어졌다고 생각한다.

농장일군들의 이야기는 길지 않았다. 하지만 축산을 비교적 잘한다고 자부하고있던 작업반초급일군들의 자책은 컸다. 비교적 유리한 지대에 위치한 축산작업반이라고 하지만 더 전진하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이날 그들은 풀먹는짐짐승생산을 늘이기 위한 목표를 다시금 높이 세웠다. 그후 양기르기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시작되였다.

제일먼저 내민것은 먹이문제해결이였다. 작업반초급일군들은 40여정보의 자연풀판을 잘 관리하는것과 함께 인공풀판을 조성하여 이동방목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작업반에서는 지난해에 한사람같이 땔나무 10여정보의 인공풀판을 새로 조성하였다.

작업반초급일군들은 모든 작업반원들이 먹이풀판을 조성해놓은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풀이 무성한 계절에 많은 청풀을 베어 물철임을 해놓도록 함으로써 겨울철먹이를 충분히 마련할수 있게 하였다.

작업반에서는 여러가지 병예방을 위한 사업도 과학적으로 내밀었다. 군의 해당 기관과의 련계밑에 예방접종을 하는것과 함께 자체의 실정에 맞는 여러가지 수의약들을 리용하여 폐사률을 낮추는 사업에 힘을 넣었다.

작업반초급일군들과 작업반원들은 여러해에 걸치는 탐구와 노력으로 황경피나무껍질과 여러 약재들을 리용하여 설사를 막고 해충을 구제하는 방법을 찾아 양들을 안전하게 키울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았다.

그뿐이 아니다.

여름철에 양들에게서 나타나는 발목병을 막기 위해 양우리마다 지면에서 40㎝이상 올려 된 발판을 설치하도록 한것을 비롯하여 과학적인 사양관리방법들을 부단히 찾아 도입한 실례는 많다.

결과 작업반에서는 양마리수를 늘이고 안전하게 키울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였다.

본사기자

염소사양관리를 과학적으로

신계군 양염소종축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염소방목과 사양관리를 과학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방목구역들의 풀판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종업원들이 염소기르기를 잘하도록 사업을 짜고들었다.

종업원들은 염소의 생리적특성에 맞게 방목과 사양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방목을 염소의 활동습성에 맞게 하기 위한 된바람이 불었다. 종업원들은 풀보다 나무잎과 가지를 더 즐겨먹는 염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떨기나무들이 많은 곳을 따라가면서 방목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풀판상태를 보아가며 순환식방목을 잘해나갔다. 사양관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종업원들의 노력으로 어미염소들의 영양상태가 좋아지고 새끼염소들의 증체률이 높아졌다.

한편 종업원들은 수의방역사업에도 큰 힘을 넣었다. 그들은 풀판소독에 깊은 관심을 돌려 염소가 방목과정에 진드기와 같은 해충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청소와 소독을 정상화하여 염소가 습기와 나쁜 냄새때문에 병에 걸리는 일이 없게 하였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뜻깊은 올해를 높은 성과로 빛내이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고있다.

본사기자

제16차 평양국제영화축전

선전화들이 나왔다

제16차 평양국제영화축전 선전화들이 나왔다.

세계지도를 배경으로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들과 꽃다발이 그려진 선전화에는 《제16차 평양국제영화축전》, 《환영》이라는 글발이 새겨져있다.

선전화는 이번 축전을 뜻깊게 장식할 일념을 안고 대륙과 대양을 넘어 평양으로 오는 외국의 벗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친선의 감정을 담고있다.

축전마크와 홰불을 형상하고 《자주》, 《평화》, 《친선》이라는 글발을 부각시킨 선전화는 축전의 리념을 고수하고 영화예술창조로 인류공동의 사회적진보와 번영을 추동하려는 세계 여러 나라 영화인들의 념원을 잘 보여주고있다.

선전화들은 열어섯번째의 년륜을 아로새기게 될 평양국제영화축전의 분위기를 한층 돋구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제16차 평양국제영화축전에 참가할 여러 나라의 국제심사원들 도착

제16차 평양국제영화축전에 참가할 로씨야, 중국, 폴스까의 국제심사원들이 15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축전조직위원회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화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조국수호정신, 이것은 그 어떤 물리적힘에도 비할수 없는 최강의 힘이며 우리 새세대들이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인 로병들에게서 넘겨받아야 할 가장 귀중한 유산입니다.》

우리의 전쟁로병들을 민족의 장한 영웅, 진정한 애국자들로 내세워주고 그들이 지녔던 수령결사옹위정신, 조국수호정신을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더욱 깊이 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품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정의 인간들로 자라나고있는가.

신천군 읍 169인민반에서 살던 전쟁로병이며 공화국영웅인 리흥규렬사의 자녀들이 걷고있는 길이 그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있다.

가렬한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비행기사냥군조운동에 참가하여 많은 적기를 쏴떨군 빛나는 공로로 하여 1951년 8월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받은 리흥규전쟁로병은 지금 우리곁에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랑과 믿음속에 지난해 7월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보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해를 안치하는 의식에 참가한 리흥규렬사의 자녀들은 충신의 삶은 죽어서도 영생한다는 진리를 가슴깊이 새겨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갈수록 더해만 가는 어버이사랑에 목메여 영웅의 자녀들은 신천군에서 살고있는 맏아들 리용운동무의 집에 모여앉았다.

인민군대에서 제대되여 당의 은덕으로 대학공부를 하고 지난 수십년간 군총배전소에서 전력보장사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해오고있는 리용운동무의 뒤를 이어 자식모두를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맏딸 리용숙동무, 둘째딸 리용희동무와 조선인민군 군관인 둘째아들 리용택동무 그리고 셋째아들인 리용구동무.

공화국영웅인 아버지의 넋을 이어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마다에서 애국헌신의 자욱자욱을 새겨가고있는 그들이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야 어찌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어머니 우리 당의 사랑과 믿음에 영웅의 후손들로서 부끄럼없이 산다고 하랴.

《난 지금도 아버지가 신천군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자주 찾군 하던 모습을 형해오고있는 리용운동무의 군관인 남편의 뒤를 이어 자식모두를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맏딸 리용숙동무, 둘째딸 리용희동무와 조선인민군 군관인 둘째아들 리용택동무 그리고 셋째아들인 리용구동무.

공화국영웅인 아버지의 넋을 이어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마다에서 애국헌신의 자욱자욱을 새겨가고있는 그들이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야 어찌 날 잊을수가 없구나.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이 클수록 애국충정의 더운 피로 심장을 끓이는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도리이고 의리라고 생각한다.》

리용운동무의 이야기에 형제들모두가 격동된 심정을 금치 못하였다.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합쳐졌다.

하여 영웅의 자녀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신천땅을 더 잘 꾸리는 사업에 자기들의 지성을 바치기로 하였다.

영웅의 5남매와 그 가족들은 신천군 읍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에 떨쳐나섰다.

부모들의 마음까지 합쳐 불타는 충정과 애국헌신의 자욱자욱을 이어가는 그들의 모습은 군인군들과 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지난 7월 중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화국영웅 리흥규렬사의 자식들모두에게 애국렬사증을 안겨주도록 하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애국렬사증을 수여받던 날 영웅의 5남매는 전쟁로병들의 숭고한 넋을 이어 우리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갈 불같은 맹세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본사기자 리승철

이어가는 참된 넋

공화국영웅 리흥규렬사의 자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이 떠나갔다

최은복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이 15일 평양을 떠나갔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김진국동지가 전송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국제행사에 참가하였던 외국손님들이 떠나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국제행사에 참가하였던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인 조선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과 오스트랄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문화협회대표단,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대표단, 록셈부르그조선친선협회대표단, 네데를란드헤이덴종합대학 교수일행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15일 비행기와 렬차로 평양을 떠나갔다.

스웨리예주체사상연구소조대표단 귀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오스카르 될레비 책임자를 단장으로 하는 스웨리예주체사상연구소조대표단이 15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도이췰란드좌익당 원로리사회 위원장일행이 떠나갔다

한스 모드로브 도이췰란드좌익당 원로리사회 위원장과 일행이 15일 평양을 떠나갔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이 전송하였다.

해외동포들이 떠나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행사에 참가하였던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산하조직일군대표단,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로일군대표단, 재중동포전쟁로병대표단, 재중동포예술인대표단,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15일 렬차와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이에 앞서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일군대표단,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대표단, 재뉴질랜드동포협의회대표단, 로씨야 나호드까동포대표단, 로씨야 우쑤리스크동포대표단, 독립국가협동체지역기업가대표단이 갔다.

【조선중앙통신】

강대하고 존엄높은 내 조국의 70년력사를 전하는 불멸의 화폭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국가미술전람회를 보고

공화국창건 7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그 기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 더 큰 박차를 가해나가고있는 온 나라의 천만군민에게 승리의 신심을 더해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국가미술전람회가 조선미술박물관에서 성황리에 계속 진행되고있다.

이번 국가미술전람회에는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감동깊게 보여주는 영상미술작품들을 비롯하여 수백점의 우수한 작품들이 출품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우리의 창창한 앞날을 축복해주시고 천하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과 불패의 군민대단결이 있으며 당의 위업을 량심과 의리로 받들어나가는 충직한 인민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입니다.》

조선화, 유화, 아크릴화, 수채화, 조각, 판화, 조선보석화, 도자공예, 금속공예, 수예, 서예를 비롯하여 이번 국가미술전람회에 출품된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우수한 작품들은 주체사상적내용이 훌륭하고 독특한 예술적가치를 가지는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이목을 끌고있으며 깊은 여운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국가미술전람회에 출품된 작품들은 무엇보다먼저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그 강화발전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 수령님들의 위인적풍모를 높이 칭송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공화국의 70년력사는 절세위인들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가장 성스럽고 긍지높은 력사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반만년력사에 처음으로 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의 탄생이였으며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과 부강조국건설에서 근본적인 전환으로 되는 민족사적사변이였다.

그 민족사적사변이 가지는 의의를 감명깊게 보여준 화폭들로서 유화 《탄생》, 《인민의 뜻으로 선 나라》, 조선화 《새 조선의 국기와 국장이 탄생하던 나날에》 등을 들수 있다.

작품들에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람홍색공화국기를 게양하시며 인민의 새 나라를 길이 빛내여갈 굳은 결심을 다지시는 거룩하신 모습,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위업을 받들어 정력적으로 활동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고결한 충정의 모습, 우리 국가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진두에 높이 모신 감격을 목청껏 터치며 힘차게 전진하는 인민의 모습을 통하여 수령님의 불멸의 건국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고있다.

국가미술전람회에 출품된 작품들가운데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새 나라에서 누리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약동하는 시대의 숨결을 반영한 화폭들도 적지 않다.

그러한 작품들로서는 유화 《새 조선찬가》, 《민주의 첫 아침》, 조선보석화 《꿈같은 세상》 등을 들수 있다.

자동차적재함우에서 신바람나게 연주하는 젊은 취주악대성원들을 형상한 유화 《새 조선찬가》를 보면 금시라도 《애국가》와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가 울려나오는것만 같고 선거표를 받아안고 기쁨에 넘쳐있는 인민들을 형상한 유화 《민주의 첫 아침》을 보느라면 해방후 첫 민주선거장에 우리들자신도 서있는듯 한 감흥을 받아안게 된다.

조선보석화 《꿈같은 세상》도 난생처음 분여받은 제 땅에서 기둥 수확물로 부림소도 사매고 풍성한 살림을 갖추게 된 꿈같은 현실을 체험하며 잠 못 드는 순박한 농민의 형상을 통하여 공화국의 창건과 인민을 위한 국가정책의 실시가 우리 인민들의 운명개척에서 얼마나 놀라운 전변을 안아왔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준 화폭이다.

이 작품들은 한결같이 공화국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나아갈 때 우리 인민의 행복한 삶이 담보되고 찬란한 래일이 있다는것을 의미심장하게 강조해주고있다.

국가미술전람회에 출품된 작품들가운데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이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였다는것을 보여주는 력사적인 화폭들도 있다.

조선화 《꺼질줄 모르는 당중앙의 불빛》, 《편하기게 개발자들과 함께》, 《굿은비 맞으시며》, 《한생을 초불처럼 불태우시며》, 유화 《주체비료생산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주시며》, 아크릴화 《조선아 너를 빛내리》 등의 작품들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번영을 위한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면서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해주시였으며 주체조선의 국력을 굳건히 다져주시고 강성부흥의 담보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감명깊게 보여주는 력사적인 화폭들로서 인민의 심장속에 그이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흠모의 열기를 더해주고있다.

국가미술전람회에 출품된 작품들은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수호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락천적인 생활, 시대상을 훌륭히 반영한것으로 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천만년 무궁번영할 주체의 강국으로 더욱 빛내일 천만군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 불타는 애국심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유화 《영생의 별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길에서 값높은 생의 자욱을 남긴 인민군정찰병들의 형상을 통하여 전화의 영웅들이 피로써 지킨 조국의 귀중함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는 인상깊은 화폭으로서 조국을 위해 바친 삶은 조국과 더불어 영생한다는 진리를 명백히 강조해주고있다.

그처럼 귀중한 조국을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륭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없는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천하제일강국으로 온 누리에 떨치실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인 모습과 락천적인 생활을 반영한 작품들도 이번 국가미술전람회에 많이 출품되였다.

조선화 《푸른 등판의 새 주인들》, 《김철의 새 모습》, 《과학기술전시장에서》, 《탄전의 휘는》, 유화 《변모되는 삼지연마을》, 《아침》, 아크릴화 《새 기적의 동음》, 조각 《자강력의 강자들》, 《신기록》, 《명예를 걸고》, 나무공예 《황금해의 창조자들》, 불공예 《마식령의 스키바람》 등이 그 대표적작품들이다.

작품들에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주요전구들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인민들의 영웅적투쟁모습, 당의 온정속에 행복한 삶을 누려가는 우리 인민의 문명한 생활 등에 대한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내 조국땅에 차넘치는 불타는 애국심과 더 좋은 래일을 앞당기려는 투쟁열의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국가미술전람회는 천만군민으로 하여금 주체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게 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기상을 세계만방에 떨치며 더 큰 승리를 안아올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간직하게 하는데서 대우 의의있는 계기로 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강대하고 존엄높은 내 조국의 70년력사를 전하는 수많은 화폭들을 통하여 받아안은 삶과 투쟁의 진리를 다시금 새기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가리키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길로 더욱 힘차게 나아갈것이며 영원한 태양의 력사가 흐르는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최후승리의 그날을 앞당겨올것이다.

본사기자 백성근

만민의 다함없는 지성이 어린 선물들

핀란드민족악기 《깔텐레》

핀란드민족악기 《깔텐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에 즈음하여 핀란드작가와 그의 부인이 주체67(1978)년 9월 9일에 축하의 편지와 함께 삼가 올린 선물이다.

핀란드작가와 그의 부인은 자기 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민족악기 《깔텐레》를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기로 하였다.

핀란드사람들은 수세기동안 사용하여오는 이 민족악기를 출입문에 달아두고 문을 여닫을 때마다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선률을 듣는 고유한 풍습과 전통을 가지고있다.

핀란드작가의 가정에는 증조할아버지때로부터 애용해오던 민족악기 《깔텐레》가 있었다. 그의 가정에서는 대대로 물려오면서 사용하여온 이 악기를 가문의 보물로 가장 귀중히 여겨왔었다.

핀란드사람들은 가정에 오랜 가보를 가지고있는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남에게 주는 일이 거의 나 없다.

그러나 핀란드작가와 그의 부인은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시어 그 광휘로운 빛발로 온 누리를 찬란히 비치시며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려는 자기들의 숭고한 충정심과 그이를 흠모하고 따르는 다함없는 마음을 표시하여 자기 가정의 가보인 《깔텐레》를 선물로 올리기로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그들부부가 올린 핀란드민족악기 《깔텐레》의 음향판은 나무로 만들었으며 음선은 모두 8줄로 되여있다.

그리고 선물에는 《노래하라 나의 깔텐레야, 어서 오라 나의 친구야》라고 핀란드어로 새겨진 글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 핀란드작가와 그의 부인은 이 선물과 함께 축하의 편지도 삼가 올리였다.

수정과일그릇

수정과일그릇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로씨아 엠.에.빠뜨니쯔끼명칭 국립아까데미아민속합창단에서 주체97(2008)년 6월에 삼가 올린 선물이다.

여러차례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공연도 진행하고 로씨아민속예술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도 받아안은 로씨아 엠.에.빠뜨니쯔끼명칭 국립아까데미아민속합창단 단장을 비롯한 전체 성원들은 뛰여난 예술적천품과 한없이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신 장군님의 위인적풍모에 매혹되여 열화와 같은 흠모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게 되였다.

단장을 비롯한 합창단성원들은 또다시 우리 나라를 방문하게 된 커다란 영광과 기쁨에 감격을 금치 못해하면서 절세의 위인에 대한 끝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마련한 수정과일그릇을 선물로 올리였다.

수정과일그릇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체스꼬 보헤미아의 이름있는 수정공예품회사에 특별주문하여 만든것이다. 수정과일그릇은 웃부분직경 25cm, 밑부분직경 15cm, 높이 35cm이다.

선물에는 끊임없는 전선시찰과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정력적으로 사업하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수정과일그릇에 맛있고 향기로운 과일을 담아 잡수시며 잠시나마 휴식하시기를 바라는 합창단성원들의 뜨거운 마음이 담겨져있다.

본사기자

인민의 기쁨 넘치는 릉라인민유원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릉라인민유원지의 이름에서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기본입니다. 릉라인민유원지는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기 위하여 건설한 인민의 유원지입니다.》

릉라인민유원지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에 의하여 륭치수려한 대동강반의 릉라도에 세계적수준의 종합적인 유원지로 일떠선 대기념비적창조물이다.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헌신의 자욱이 뜨겁게 새겨져있는 릉라도에 세상에 자랑할만 한 문화정서생활기지를 꾸려주신 구상을 펼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유원지건설 전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릉라도지구를 릉라인민유원지로 부르도록 뜻깊은 이름도 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차례 공사장을 찾으시며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세심히 지도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무한히 고무된 군인건설자들은 《릉라도를 인민의 섬으로 만들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방대한 대상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단숨에 완공하였다.

그리하여 주체101(2012)년 7월 25일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릉라인민유원지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넓은 면적의 부지에 자리잡고있는 릉라인민유원지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미적지향, 세기의 요구에 맞는 금등어관과 물놀이장, 유희장, 미니골프장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연건축면적이 근 1만 500㎡에 달하는 릉라금등어관은 공연수조와 보조수조, 전의봉사시설들을 충분히 갖추고 금등어들의 재주를 보여주며 여러 바다동물들에 대한 상식을 주는 문화정서생활기지이다.

4개의 주로를 가진 물미끄럼대와 먹수터, 조약대, 물놀이수조, 롱구장과 배구장, 모래터배구장, 청량음료점 등으로 이루어진 릉라물놀이장은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에게 대담성과 용감성을 키워주고 그들이 마음껏 휴식할수 있도록 특색있게 설계된 이채로운 물놀이장이다.

릉라유희장은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뉘여져있으며 두개의 구역사이를 자유롭게 오고갈수 있는 유람키관차도 있다.

1구역에는 타래회전반, 우주비행반, 수직회전그네, 회전비행기, 전기자동차, 회전대, 립상회전반 등 유희시설들과 물동영화관, 전자오락관, 웃음집이 있다. 2구역에는 꼬임회전반, 비행자전거, 문어회전반, 급강하탑, 관성단차 등 유희시설들과 전자오락관, 거울집이 있으며 1구역과 2구역사이에는 미로유희시설이 있다.

미로유희시설은 총연장길이가 550m인 통로와 입구, 출구가 각각 1개, 열림통로 2개, 미궁 3개, 막힘구간 9개로 되여있다.

릉라도의 자연환경에 잘 어울리는 미니골프장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즐거운 문화휴식터로 되고있다.

유원지에는 금양봉사망도 훌륭히 꾸려져있다.

릉라도식당, 국수집, 김밥집과 지짐집, 차집, 청량음료점 등에서는 유원지를 찾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민족음식을 비롯한 특색있는 음식들과 음료들을 봉사하고있다.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인민관, 조국관, 미래관이 훌륭히 구현된 릉라인민유원지로는 수많은 근로자들, 청소년들이 찾아와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으며 행복의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이처럼 릉라인민유원지는 우리 인민들에게 끝없는 행복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이민위천의 사상을 구현하여 세상에 자랑할만 한 종합적인 유원지로 훌륭히 일떠선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며 사회주의만년제부이다.

하기에 릉라인민유원지를 찾은 외국인들은 《…이런 훌륭한 유원지를 김정은원수님의 귀중한 선물로 받아안은 조선인민을 축하한다.》, 《훌륭히 일떠선 릉라인민유원지에서 숭고한 인민사랑의 정치에 대해 절감하였다.》, 《유희장환경이 매우 우아하고 유희시설들이 정말 그쯘하다. 정말 잊을수 없는 밤이다.》,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인민사랑이 있어 이 유희장도 그토록 빛나는것이다.》라고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절세의 위인들이 바쳐오신 사랑과 헌신의 자욱우에 솟아난 행복의 락원인 릉라인민유원지는 앞으로도 인민들의 기쁨을 더욱 꽃피우며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끝없이 빛날것이다.

김수정

숭고한 애국의 마음을 안고 원림록화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주체사상탑개선문관리소에서— 본사기자 최충성 찍음

중앙동물원에 선물동물들이 늘어났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는 근로자들이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온갖 조건이 마련되여있습니다.》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기지로 훌륭히 꾸려진 중앙동물원에 선물동물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으뜸가는 문화휴식장소를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온정속에 올해에만도 많은 동물들이 륭치수려한 대성산기슭에 보금자리를 잡고 중앙동물원을 찾아오는 우리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지난 1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7종에 30마리에 달하는 관상용개들이 중앙동물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고있다. 생김새와 성질이 각이한 이 선물동물들은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있는 우수한 종의 개들이다.

올해 8월에는 이 선물동물가운데서 두마리가 각각 4마리, 3마리의 귀여운 새끼들을 낳아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현재 새끼들의 몸집량은 각각 800g, 1kg정도에 달하며 길이는 15cm, 25cm정도에 달한다.

올해에 중앙동물원에 들어온 희귀한 동물들가운데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6월에 보내주신 8마리의 장수어(중국큰도롱뇽)도 있다.

량서류가운데서 몸집이 가장 큰 종류에 속하는 장수어는 비교적 찬물을 좋아하며 물이 맑고 조용한 환경에서 사는데 물에서는 아가미로 숨을 쉬고 물밖에서는 폐와 피부로 숨을 쉰다. 다 자란 상태에서의 몸길이는 1~1.5m, 무게는 보통 20~30kg이며 최고 50kg에 달하는것도 있다.

훌륭히 꾸려진 중앙동물원에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사는 보기드문 동물들의 종수가 계속 늘어나고있는것은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결실이다.

우리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중앙동물원에서 휴식의 한때를 보내며 이 땅우에 인민의 웃음꽃을 더욱 만발하게 피워주시려고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온정을 가슴뜨겁게 느끼고있다.

본사기자 김성룡

맛있고 영양가높은 고급남새작물—주름아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종합비타민이라고 할수 있는 남새는 사람들의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식품일뿐아니라 여러가지 병을 예방하고 장수를 도모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름아욱은 무공화과에 속하는 한해살이남새작물로서 독특한 맛과 향기를 가지고있을뿐아니라 영양가와 생산성이 높고 리용가치가 큰 고급남새작물이다.

다 자란 주름아욱의 높이는 180cm이상이며 잎은 주름있는 부채모양이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에서 육종해낸 주름아욱은 배추, 시금치를 비롯한 일반남새들에 비하여 단백질함량은 3~4배정도, 비타민 C, B_1, B_2을 비롯한 여러 비타민들의 함량은 10배정도나 많으며 칼시움, 마그네시움을 비롯한 광물질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 좋은 작용을 한다.

특히 장수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민 E가 들어있어 로화를 방지하는데도 효과가 있다.

주름아욱은 생산성이 높다. 다른 남새작물에 비하여 빨리 자라는 주름아욱은 재래종아욱보다 잎이 훨씬 더 크고 개수도 많으며 봄부터 가을까지 한해에 여러번 수확할수 있어 1년에 정보당 140t정도 생산할수 있다.

주름아욱은 잎줄기와 뿌리, 씨앗을 고려약재로 쓰며 록비 및 먹이작물로도 쓸수 있는것으로 하여 리용가치 또한 크다.

번식은 씨로 한다.

종자는 이른봄에 심은 밭에서 충실한 포기를 골라 잎을 따지 않고 놓아두었다가 꽃이 피여 맺히는 열매를 채취하여 리용한다.

제하가 6~7정도이고 습하지 않은 땅에 종자를 심는것이 좋다.

주름아욱의 성장에 가장 적합한 온도는 15~20℃이며 낮은 온도와 높은 온도에서도 잘 견디는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다 재배할수 있다. 한번 수확한 다음 결가지를 많이 치기때문에 씨솎음을 잘해주어야 한다.

주름아욱의 어린 순과 잎은 그대로 국을 끓여먹거나 데쳐서 나물을 만들어먹을수 있으며 슬쩍 데쳐 말려웠다가 겨울부식물로 리용할수도 있다.

주름아욱으로 국을 끓이면 구수한 참미역국같고 또 볶거나 무쳐서 먹으면 향기롭고 감칠맛이 있다. 물고기회를 하거나 고기음식을 만들 때 주름아욱을 넣으면 질은 향기로 하여 그 맛이 별맛이다.

이처럼 영양가가 높고 맛이 독특한 주름아욱을 널리 재배하면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할수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 인민과학자 원사 박사 정종수

콩메주를 리용한 당뇨병의 예방치료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콩을 리용하여 맛있고 영양가높으며 건강증진에도 효과가 좋은 특색있는 민족음식들을 많이 만들어 식생활에 리용하였다. 그중에는 콩으로 만든 메주장도 있다. 먼 옛날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명동때에 가정들에서 메주쑤는것을 하나의 풍습으로 여겨왔다.

옛 문헌인 《증보산림경제》에서는 《장은 모든 음식맛의 으뜸》이라고 하면서 《콩을 물에 씻은 다음 하루밤 물에 담그었다가 건져서 익힌것을 절구에 찧어서 둥글게 메주를 만든다.》고 하였다. 이렇게 찧은 메주를 버짚으로 싸서 무엇, 헛간같은데 매달아두었다.

메주가 뜨게 되면 다음해 2~3월경에 독에 넣고 소금물을 부어 장을 담그는것이 일반적이였다. 이렇게 만든 메주장은 인체의 성장과 건강에 좋은 여러가지 생리활성물질들을 풍부히 포함하고있으며 항암, 혈전용해, 혈압낮춤, 항산화작용 등 다양한 기능을 나타낸다. 메주장을 리용하여 당뇨병을 치료한다는 연구자료도 있다.

콩단백질이 몸안에서 트립신이라는 단백질분해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분해되면 콩펩티드들이 생기는데 이 펩티드들은 혈당량을 낮추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그런데 콩속에는 트립신의 작용을 억제하는 콩트립신억제제가 있다. 콩메주를 쑤고 띄우는 과정에 콩트립신억제제가 없어지고 콩단백질들도 흡수되기 쉬운 상태로 된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의 과학자들은 이러한 콩메주엑스를 리용하여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에 좋은 당뇨식전차를 개발하였다. 이름그대로 식사하기 전에 마시는 이 차는 콩메주에서 유효성분들을 추출분리하고 여기에 쥐뽀리엑스 등을 배합하여 만든것으로서 당뇨병의 예방치료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림상검토과정에 이 차를 마시어 한달이내에 환자의 혈당량이 낮아지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본사기자

가재미의 특성과 그 자원보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증식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재미는 가재미과의 물고기들을 통털어 부르는 이름이다.

우리 나라에는 17개 속에 20여종의 가재미가 있다.

가재미는 정착성물고기로서 멀리 가지 않고 바다밑바닥에서 산다.

우리 나라 바다 전연안에 분포되여있는 가재미에는 참가재미, 검둥가재미, 검은가재미, 돌가재미, 기름가재미 등이 있다.

이외에 조선동해에는 붉은가재미, 모래가재미, 송계가재미, 어기가재미, 이가재미 등이 더 분포되여있다.

비교적 깊은 바다밑층에 사는 가재미는 기름가재미, 붉은가재미, 이가재미, 청가재미 등이며 바다연안의 강하구에서 사는 가재미는 줄무늬가재미, 강가재미, 돌가재미이다.

가재미는 종에 따라 알낳이시기가 차이나는데 4~8월에 알낳이를 하는 가재미는 참가재미, 검둥가재미, 모래가재미, 기름가재미, 붉은가재미, 어기가재미 등이며 11월부터 다음해 3월사이에 알낳이를 하는 가재미는 돌가재미, 청가재미, 도다리이다.

한마리의 가재미가 알을 낳는 량도 종마다 차이나지만 보통 10만~56만개(참가재미는 99만개이상)이며 알은 모래감량의 바닥에 가라앉아 부착되는데 모래가재미, 송계가재미, 말가재미의 알은 물우에 뜬다.

가재미는 성숙된 알을 한번에 낳는것이 아니라 알이 성숙되는데 따라 여러번 알낳이를 하며 수컷은 한번에 정자를 내보낸다.

가재미는 바다의 밑바닥에서 사는데 맞게 몸이 납작하며 몸색도 바닥색과 비슷한것으로 하여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한다.

눈도 먹이를 찾고 자기를 보호할수 있게 대가리의 한쪽에 몰려있다.

갓난 고기는 몸통이 둥실하고 눈도 대가리의 량쪽에 있으나 자라면서 모습갈이를 하여 납작해지며 부레는 어린 고기시기에만 생겼다가 없어진다.

가재미는 단백질과 기름질함량이 비교적 많은 물고기이므로 식용적가치가 크다. 우리 나라에서는 가재미를 기본어업자원으로 리용하고있다.

가재미자원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가재미를 인공적으로 증식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 벌리며 가재미인공방류사업을 꾸준히 진행해나가야 한다.

가재미는 거의 대부분이 연안수역에서 알낳이를 진행하는것만큼 바다를 오염시킬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여 대책을 세우며 바다밑바닥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수산성 수산연구원 동해수산연구소 실장 김일철

부석콩크리트부재

자료에 의하면 부석자원이 많은 나라들에서는 콩크리트부재생산에 부석을 경량골재로 많이 리용하고있다.

부석은 화산이 분출할 때 금산염용융체인 암장이 공기중에서 갑자기 식으면서 형성된 유리질의 화산분출물로서 기공이 많으므로 가볍고 열전도도가 낮다.

현재 부석으로 만든 콩크리트부재는 가볍고 보온효과가 좋은것으로 하여 벽판부재로 많이 리용되고있다. 그러나 부석은 세기가 낮고 수분흡수률이 높기때문에 이것으로 만든 콩크리트부재는 누름세기가 낮고 동절융해피해를 쉽게 받는것으로 하여 도입에서 일정한 지장을 받고있다.

어느 한 나라에서 부석콩크리트부재의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한 몇가지 방도는 우선 연재를 첨가하여 세기를 높이고있는것이다. 부석은 겉면에 미세한 공극이 많아 세멘트혼합물의 류동성을 낮추어 부석겉면과 혼합물사이의 치밀성을 연구기때문에 콩크리트의 세기를 낮추게 된다.

부석콩크리트를 만들 때 연재를 첨가하면 세멘트혼합물의 류동성이 높아져 혼합물이 부석겉면의 공극들에 잘 흘러들어가 구조를 치밀하게 하여주고 콩크리트의 건조수축에 의한 균렬을 감소시키기때문에 세기를 높일수 있다.

또한 폴리프로필렌섬유를 첨가하여 내동성을 높이고있는것이다. 부석콩크리트는 공극이 많으므로 수분이 쉽게 흡수되며 겨울철에 얼면서 콩크리트내부에 균렬이 생기고 그것이 확장되면서 들뜨거나 떨어져나가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폴리프로필렌섬유를 첨가하여 균일한 그물구조가 형성되게 하면 콩크리트내부에 균렬이 생기거나 확장되는것을 막고 내동성을 높일수 있다.

본사기자

숭고한 민족애가 안아온 자주통일의 새시대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있다.

불신과 대결로 얼어붙었던 이 땅에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훈풍이 불고 조선반도정세에서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북남사이에 대화와 접촉, 래왕의 문이 열리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미래를 확신하게 하는 소중한 성과들이 마련되고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북남관계의 경이적인 사변들은 전세계 애국자이시며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특출한 정치실력과 숭고한 민족애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전체 조선민족의 환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하루빨리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조국과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장 숭고한 풍모이다.

비록 외세에 의하여 강토와 민족은 둘로 갈라져있어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는 하나의 조선, 하나의 겨레만이 자리잡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민족분렬의 비극의 력사에 하루빨리 종지부를 찍고 삼천리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실 웅지를 안으시고 조국통일위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색과 실천의 중심에는 언제나 조국과 민족이 있다. 그이께서 조국통일의 밝은 앞날을 설계하신것은 조국과 민족에 대한 불보다 뜨거운 사랑, 자주통일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자기 민족, 자기 겨레를 그토록 열렬히 사랑하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자주통일위업을 변함없이 계승하고 키어 이 완성하실 철석의 의지를 천명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깊은 연설은 온 겨레의 심장을 틀어잡았으며 세계를 진감시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민족자주정신으로부터 출발한 대범하고 합리적인 제안들을 내놓으시여 조국통일위업앞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시였으며 탁월한 령도력과 고결한 덕망으로 민족의 통일의지를 비상히 높여주고 통일운동의 전성기를 펼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이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조성된 정세와 겨레의 통일지향, 변화된 조선반도의 전략적구도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새로운 북남관계개선방침은 우리 겨레가 겹쌓인 시련과 난관을 파감히 뚫고 조국통일위업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지침이다. 여기에는 민족자주의 기치높이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북남대결상태를 해소하고 자주통일위업을 추동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은 그이의 열렬한 민족애와 두철한 통일의지,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현명한 방략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내외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불러일으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북남관계대전환방침에 따른 실천적조치들을 련이어 취해주시여 오래동안 이그러졌던 비극적인 북남관계를 바로잡아주시였다. 우리 고위급대표단의 남조선방문과 예술단, 선수단, 응원단 등의 파견은 온 남조선땅을 통일열기로 끓어번지게 하였으며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긴장완화의 기운을 더욱 고조시키였다.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숭고한 사명으로 새겨안으시고 그 실현에 모든것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는 이 땅우에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펼치였다.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백두산절세위인의 확고한 의지에 의해 지난 4월 27일 분렬과 고통, 대결과 적대의 상징으로 되여온 판문점에서 력사적인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스스로 책임지고 개척해나갈 의지를 담은 판문점선언이 채택되였다.

그로부터 한달만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판문점선언의 리행으로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평화번영의 흐름을 더욱 추동해나가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제4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마련하시여 온 겨레에게 조국의 자주적통일은 머지않아 반드시 이룩되며 민족의 미래는 끝없이 휘황찬란하다는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시였다.

정녕 북남관계에서 이룩된 의의있고 훌륭한 성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북남관계대전환방침과 그이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확고한 통일의지와 숭고한 민족애,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은 북남관계개선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력사를 개척하고 온 민족을 자주통일위업실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으로, 활력소로 되고있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평양을 방문한 남측특사대표단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동포애적이며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나누시였다. 이것을 계기로 남조선에서는 력사적인 평양수뇌상봉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전례없이 고조되고있다.

남조선의 민주개혁정당들은 이번 평양수뇌상봉이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되며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북남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획기적이고 전환적인 계기》로 될것이라고 하면서 지지찬동하고있다. 각계 통일운동단체들과 인민들도 평양수뇌상봉이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새로운 계기로 된다고 하면서 적극 환영해나서고있다.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은 특출한 정치실력과 함께 비범한 예지와 열렬한 민족애를 지닌 위인을 령도자로 모실 때라야만 빛나게 개척될수 있다.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한몸에 안으시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시는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높이 모시여 우리 민족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우리 겨레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애국애족의 뜻과 의지를 받들어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힘차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이 땅우에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심 철 영

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알제리대통령이 우리 나라 대사관에 대형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아브델아지즈 부테플리까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이 9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 대형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모크타르 레귀에그 의례총국장을 비롯한 알제리대통령부의 성원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의례총국장은 아브델아지즈 부테플리까각하의 축원의 마음을 담아 김정은최고령도자각하께와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중국에서 전람회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중국의 베이징과 단동에서는 문화전람회가, 심양에서는 도서, 사진 및 미술전람회가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전람회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국의 로세대령도자들과 상봉하시는 사진문헌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중국방문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최세의 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우리 나라를 소개하는 도서들과 우표들, 조선인민의 창조재능이 깃든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전람회개막식들에는 중국문화부 문화판리협회 상무부주석 겸 동방문화예술원 원장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김일성주석의 사진문헌은 중조친선의 강화발전을 위해 바치신 그이의 업적을 돌이켜보게 한다, 모택동주석과 김일성주석께서 마련해주신 중조친선은 두 나라 인민들에게 있어서 귀중한 유산으로 된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와 습근평동지의 깊은 관심속에 조중친선관계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료녕성인민정부 외사판공실 부주임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밑에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충철되는 난관을 헤치고 위대한 승리들을 이룩하였다.

김정은동지의 세련된 령도아래 조선인민이 모든 분야에서 보다 큰 성과들을 이룩하리라고 믿는다.

앞으로도 전통적인 중조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다.

쓰르비아정당, 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쓰르비아정당, 단체들이 3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새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청년동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쓰르비아전국준비위원회는 성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70년력사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향도아래 번영하는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해온 승리의 력사, 기상한 창조와 변혁의 력사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은 착취와 억압이 없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로 전변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과 불패의 위력,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업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공화국의 위력을 보다 힘있게 과시하기 바란다.

【조선중앙통신】

환경보호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 중국

중국이 환경보호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지난 8월말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해양환경보호법집행검열조 제1차 전체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해양환경보호법집행검열을 진행하는 목적에 대해 강조되였다.

회의에 참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왕신은 해양환경보호법집행검열을 진행하는것은 바로 감독사업의 강도를 높이는것을 통해 문제의 걸린 고리를 정확히 찾고 각급 정부와 부문, 기업들이 해양환경보호와 관련한 법적책임을 전면적으로 리행하도록 추동하며 해양생태환경보호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법에 따라 해양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서이라고 피력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반드시 해양생태환경보호를 중시함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태환경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보다 앞서 베이징에서 진행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제13기 상무위원회 제3차회의에서도 《오염방지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건의》라는 의제밑에 이와 관련한 사업들이 토의되였다.

폐막회의에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 왕양은 오염방지공격전을 잘하는것은 전사회의 공통의 책임이며 여기에서 구경군이란 있을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계속하여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가 생태환경에서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에 계속 관심을 돌리고 조사연구를 착실히 하며 협상과 토의를 심도있게 벌림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최근년간 중국에서는 오염방지 및 환경보호사업에서 일련의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2015년에 개정된 환경보호법이 시행되여 환경보호부와 지방정부의 환경보호국이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기업들에 조업중지령을 내릴수 있게 되였다.

또한 오수와 오물처리능력이 높아지고 물과 대기 등에 대한 오염방지가 잘되여 생태환경의 질이 개선되였다.

뿐만아니라 오염물질을 비법적으로 물과 강에 버리거나 산림을 람벌하는것과 같은 생태환경파괴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벌어졌다.

하지만 아름다운 생태환경에 대한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에 비추어볼 때 아직도 중국의 생태환경은 그에 따라서지 못하고있다.

이로부터 습근평주석은 지난 5월에 열린 전국생태환경보호대회에서 연설하면서 생태환경은 인민생활과 련관된 중대한 사회적문제이며 광범한 인민대중이 생태환경수준을 하루빨리 개선할것을 열렬히 바라고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대회에서 지연회복위주의 방침전지, 대중의 건강을 해치는 환경문제들의 중점적해결, 가장 엄격한 제도와 엄밀한 법치에 의한 생태환경보호를 비롯하여 생태문명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6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이 사업을 새로운 단계에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미 중국공산당 제19차 대회에서는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현대화강국건설위업의 전진을 위해 중대한 위험방지 및 해소, 정확한 빈곤탈퇴, 오염방지의 3대공격전이 제시되였다.

최근에 진행된 환경보호사업과 관련한 회의들은 바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과 포치를 성실히 집행함으로써 생태문명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도록 추동하는 계기들로 되였다.

중국에서 생태문명건설과 오염방지공격전이 적극 추진되고있는 속에 수리부가 올해 하반년에 진행할 환경보호계획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강과 호수주변에서 오물처리사업이 진행되고 비법적인 모래채취와 물오염을 막기 위한 사업 등이 진행된다고 한다.

중국당과 정부는 사회주의생태문명관을 튼튼히 수립하고 오염방지공격전을 계속 잘해나가며 생태환경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것을 새시대가 부여한 중대한 력사적과업으로 받아들이고있다.

푸른 하늘과 맑은 물, 깨끗한 토양을 보존하기 위한 중국당과 정부의 노력은 좋은 결실을 맺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림 원

세계적으로 기아위기 악화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지난해 굶주림에 시달린 사람들의 수가 그 전해에 비해 1 700만명 더 늘어나 8억 2 100만명에 달하였다. 그것은 기후변화로 알곡소출이 대폭 줄어들고 무장분쟁이 지속되고있는데 기인된다고 한다. 11일 유엔이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어린이학대행위 우심

세계적으로 어린이학대행위가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6일 유엔아동기금은 지난 1개월동안 13살부터 15살까지의 어린이들의 약 3분의 1이 학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기금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준수하는 등의 대책을 취할데 대해 호소하였다.

로씨야에서 독립국가협동체성원국들의 외무성간 협상 진행

로씨야에서 최근 독립국가협동체성원국들의 외무성간 협상이 진행되였다.

협상에는 로씨야와 아르메니야, 벨라루씨, 까자흐스딴, 따쥐끼스딴 그리고 독립국가협동체집행위원회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협동체성원국들이 유엔에서 긴밀히 협력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엔총회 제73차회의 의정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협상에서는 또한 유엔에서의 독립국가협동체성원국 대표단들의 공통사업문제가 토의되였으며 따쥐끼스딴이 준비한 유엔과 독립국가협동체사이의 협조에 관한 결의안을 심의하고 분건작성사업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에서 일본군성노예력사 교육을 위한 웨브싸이트 개설

미국에서 10일 학생들에게 일본군성노예력사를 교육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웨브싸이트가 새로 개설되였다.

웨브싸이트는 력사적페정자료, 록화물, 참고문헌, 유엔의 중요문서들 그리고 주요증거물 제공한다고 한다.

2016년 캘리포니아주 교육당국은 10학년 학생들을 위한 세계력사교육과정안에 일본군성노예력사를 포함시키는 개정된 력사 및 사회과학교과서를 승인하였다.

짐바브웨에서 콜레라 전파, 국가비상사태 선포

짐바브웨의 하라레에서 최근 콜레라가 급속히 퍼져 피해를 입고있다. 9월에 들어와 12일현재까지 21명이 이 병에 걸려 목숨을 잃고 3 000여명이 입원하였으며 다른 지역들에도 퍼지고있다고 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공공장소에서의 모임과 고기 및 물고기판매를 금지시키고 피해지역의 학교들에서 수업을 중지시키는 등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있다.

제재와 압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

—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의 국방공업 및 무력병참담당 보좌관이 최근 한 회견에서 미싸일계획과 관련하여 절대로 흥정을 하지 않을 립장을 재천명하였다. 이란의 미싸일능력은 나라의 자주권과 명예, 자존심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하면서 그는 미국이 이와 관련한 협상을 진행할수 있을것이라고 기대하고있지만 그것은 완전한 오산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자기 나라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나라의 미싸일능력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란외무성 대변인이 12일 미국의 주장을 비난하였다. 최근 미국이 이라크의 바스라시에서 일어난 소요의 책임이 이란에 있다고 주장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미국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이라크에서 는 저들의 파괴적인 역할을 감추지는 못할것이라고 까밝혔다. 그는 미국의 대이라크정책은 불안전과 불안정만을 초래하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지역의 테로조직들을 다년간 지원해온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수리아외무 및 이주민상 왈리드 알 무알림이 12일 한 잠지와의 회견에서 미국이 수리아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로 화학무기를 써먹고있다고 비난하였다.

화학무기를 구실로 미국이 수리아침략을 정당화한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는 수리아는 그 어떤 화학무기도 보유하고있지 않다고 재천명하였다. 그는 수리아내정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종식시키는것이 나라의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총비서가 10일 성명을 발표하여 워싱톤주재 팔레스티나해방조직사무소를 폐쇄할데 대한 미국의 결정을 비난하였다. 성명은 미국의 결정을 위험한 긴장격화로 묘사하면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공격행위를 감싸주기 위해 미국이 국제적인 체제를 해체하려 한다는것을 보여준다고 까밝혔다. 성명은 팔레스티나측은 미국에 있는 자국공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취할것이며 이스라엘의 범죄행위에 대한 즉시적인 조사에 착수할것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계속 요구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영국중동담당 국무상이 최근 미국의 중동정책을 비난하였다. 그는 자기 나라 정부는 팔레스티나인들을 지원하는 유엔기구에 대한 자금제공을 중단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을 옳은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영국이 기구에 제공하던 자금을 늘일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일본은 성노예범죄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2)

3. 국가권력을 총발동하여 감행한 죄악

일본은 군성노예제를 내오는데 군권을 비롯한 각종 국가권력을 총동원하였다.

2000년 국제녀성전범법정에서도 많은 방증자료, 피해자증언자료 등을 통해 일본이 군성노예제수립에 군권, 관권을 발동하였다는것이 적라라하게 폭로되였다.

우메즈 요시지로 일본륙군성 부장관(당시)이 북지나방면군 및 중지나방면군의 참모장들에게 발송한 1938년 3월 4일부의 《군위안소 종업원 등 모집에 관한 건》(통첩문)이 대표적실례이다.

이 통첩문은 일본군성노예제도를 세우도록 한 직접적지시자, 그 운영관할자가 누구인가 하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일본륙군대신 스기야마 하지메(1880—1945)의 위임에 따라 륙군성 병무과장 이마무라와 륙군성 부장관 우메즈 요시지로(1882—1949)가 결재인장까지 찍은 이 문건에는 《위안부》모집사업이 무질서하게 진행되여 일본군의 《위신》을 저락시키고 군사작전에 지장을 주며 주둔지역《치안》에 불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있다고 지적되였고 다음과 같은 명령들을 하달한다고 명기되여있었다.

《① 〈위안부〉모집을 철저히 과견군의 통제하에 진행할것.

② 민간인전문매춘업자들을 인입하려는 경우 그들을 엄선할것.

③ 〈위안부〉모집시에는 현지 헌병대와 경찰들과 련계를 가지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것. …》

이에 따라 1938년 4월 6일 남경주재 총령사관에서 일본륙군성 병참사령관, 총령사, 령사관의 해군부관이 참석하여 륙군성, 외무성, 해군성 3성공동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그들은 《위안소》의 관리원칙과 앞으로 《위안소》를 늘일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합의하였다.

《① 륙군전속〈위안소〉는 군이 직접 관할 또는 경영하는 조건에서 령사관이 관여하지 않는다.

② 사민으로 리용하는 〈위안소〉의 경영자에 대한 관할통제는 령사관이 하며 거기에 출입하는 군인, 군속들에 대한 통제는 헌병대가 한다.

③ 헌병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안소〉에 대한 립검을 할수 있다.

④ 과견군은 점차 민간인매춘업소들을 군〈위안소〉로 전환시킨다.

⑤ 과견군은 민간인들에게 군대를 위한 〈위안소〉를 설치하도록 허가를 주는 경우에도 경영업자의 본적, 주소, 이름, 나이에 대하여 령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일본륙군성은 1940년 9월 《위안》시설에 주목하는것이 필요하다, 《성적위안》이 병사들에게 주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통보를 부대들에 하달하였다. 이밖에도 성노예제를 군부가 직접 틀어쥐고 영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취하였다. 그것이 바로 1942년 3월 26일부 《파장회보》에 발표된 륙군성 온상파장의 제안이다.

그 제안에는 주민들이 헌납하는 《국방헌금》으로 하사관이하를 위한 영구적《위안》시설을 설치할데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군부는 이 제안을 검토한데 기초하여 이미 민간업자들이 설치운영하던 《위안소》들을 정비하고 군부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위안소》들을 내오기로 하였다.

1942년 9월 륙군성 《파장회보》에서 《장교이하의 〈위안소〉시설을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 결과보고를 하였다.

그에 의하면 《위안소》는 화북에 100개, 화중에 140개, 화남에 40개, 남방지역에 100개, 남해에 10개, 화태(남싸할린)에 10개로서 모두 400개가 설치되였다.

태평양전쟁개시 직후인 1942년 3월에는 일본왕 히로히또의 《칙령 300호》를 개악하여 《위안소》관계업무를 후생업무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그해 4월부터 륙군성은 인사국의 온상파를 성노예들의 강제련행, 수송, 《위안소》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 지정하였다. 결과 일본군에는 군상층으로부터 산하부대들에 이르기까지 군《위안소》관리운영체계가 세워지고 통일적인 지휘관리하에 군성노예범죄행위가 대대적으로 감행되게 되였다.

일본군부는 조선을 성노예공급원천지로 삼았다.

조선녀성들을 랍치, 유괴, 강제련행하는 범죄행위를 현지에서 직접 지휘하고 집행한것은 조선총독부와 조선주둔군사령부였다.

일본군부의 지령이 하달되면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각 도경찰부에 지시하고 각 도경찰부는 각 군에 지령을 떨구었으며 각 군은 각 면에 지령을 하달하였다. 지령을 받은 면에서는 면장이 직접 또는 구장이나 촌장을 발동하여 녀성들을 끌어냈다.

이것을 증명하는 자료는 많다.

성노예피해자들은 증언에서 면장이나 구장들이 불량배들을 앞세우고 와서 자기들을 강압적으로 끌어갔거나 헌병, 경찰관들이 강권으로 붙잡아갔다고 말하였다.

조선녀성들에 대한 랍치, 유괴, 강제련행을 앞장에서 집행한 일본인들의 증언과 회고담들도 적지 않게 있다.

1938년 11월 4일부 내무성 경보국자료에는 중국남부를 점령한 제21군에 《위안소》를 내오기 위해 제21군의 참모와 륙군성의 모집파장이 함께 찾아와 400명의 《위안부》를 모집해달라는 요구사항들을 제기한것과 그것을 응낙한 내용이 있다.

1945년초의 일에 대하여 한 병사가 회상하여 쓴 《대륙종전비화》에는 《이 〈위안소〉가 중지(중부중국)에 위치한 계림보다 더 앞에 있는 52려단사령부의 통신대가까이에 설치되여있어 놀랐다.》고 씌여져있다.

일본군이 1944년 6월 18일 장사를 점령하고 설치한 《위안소》에 대하여 쓴 《전장도중기》(초소가와 다다오 저), 전 일본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실에서 발견된 1932년 9월부터 1933년 2월까지 일본군 제14려단사령부가 작성한 《위생순보》 34편과 함께 《예창기, 작부건강진단요령》(《위안부》건강진단법)이라는 공문서 그리고 일본인들의 증언과 함께 물증자료로 제시된 《위안소》출입증 등 증거들은 수없이 많다.

미국림시보관소에는 1944년 중미련합군이 일본군통치하의 중국남부 만마점지역을 탈환할 당시 7명의 성노예들의 모습을 담은 18초짜리 흑백동영상이 오랜 기간 보관되여있었다. 2017년 7월에 그것이 세상에 공개되였다.

그리고 일본국립공문서관에서는 1999년도에 19건에 182점의 공문서들이 또다시 발견되여 내각관방에 보내여졌다.

19건의 공문서들에는 법무성이 작성한 전후의 구동국제군사재판과 B급, C급전범자재판에 관한 자료들이 기록되여있다. 그중의 하나인 《바따비아재판 (제25호사건)》자료에는 전 일본해군의 인도네시아주둔 특별경찰대 대장이 전후 법무성관계자에게 《산에 있는 부대를 위해 200명정도의 부녀들을 〈위안부〉로 발리섬에 데려왔다.》고 증언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에 대하여 여러 학자, 전문가들은 《군의 관여와 강제련행을 보여주는 자료》, 《군이 강제로 위안부를 련행하였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일치하게 인정하였다.

1937년 당시 일본군 상해파견군 참모장 이이누마 마모루의 진중일기와 일본군성노예들을 병원직원으로 은폐하기 위해 작성한 군속자료, 제2차 세계대전시기 약명을 떨친 일제의 《731부대》에서 일본군성노예들을 실험대상으로 리용하였다는 증언사실자료(《요미우리신붕》 2007년 4월 9일부 인터네트기사), 일본군이 군성노예를 강제동원하였다는것을 립증하는 증거자료(2007년 4월 네데를란드의 법정문서에서 발견)가 들어있는 문서 등도 있다.

2007년 3월에 공개된 아오찌와시오에 대한 자료도 있다. 그것은 1946년 10월 네데를란드 림시군법회의에서 한 증언과 관결문에 반영된것이였다.

피고 아오찌는 점령지의 일본군정당국의 지시를 받고 《위안소》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2007년 4월 11일 일본 교도통신은 이 문서는 일본군이 《위안소》설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것을 자료적으로 보여주는것이기때문에 성노예강제련행사실을 뒤받침해주는 증거자료로서 가치가 크다고 보도하였다.

2007년 4월 12일에 남조선에서 공개된 성노예강제동원과 관련된 네데를란드정부기록보관소의 비밀문서 역시 일본의 군부, 정부의 직접적관여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1946년부터 1948년까지의 극동국제군사재판의 자료에도 7건의 해당 자료가 있다.

이밖에도 군부를 비롯하여 일본의 국가권력이 일본군성노예제도를 창안, 수립하였다는 자료는 실로 방대하다고 하리만큼 많다.

일본연구소 상급연구원 조 희 승

ㄱ-1811479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